세미나자료 2022-14

2022. 11. 25.(금) 15:00~17:00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

2022년 제6차 KICCE 정책토론회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 3년, 성과와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세미나자료 2022-14

2022. 11. 25.(금) 15:00~17:00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

2022년 제6차 KICCE 정책토론회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 3년, 성과와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일 시: 2022. 11. 25.(금) 15:00~17:00
- 장 소: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

- 일 정

▌사회자: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시 간	내 용	
15:00	개 회	
15:10~15:40	주제발표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5:40~16:50	종합토론	**[좌장]**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토론자]** **김영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윤미경** (푸른아이세상어린이집 원장) **정미연** (서울명일유치원 교사) **신수현** (배화여자대학교부속 배화유치원 학부모) **김정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정경진**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16:50~17:00	정리 및 폐회	

CONTENTS

주제발표

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 1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1.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 ····· 61
김영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

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의
시사점 및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방향성 ····· 67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3.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연구(Ⅲ) 정책 방안 토론 ····· 73
윤미경 (푸른아이세상어린이집 원장)

4.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문 ····· 79
정미연 (서울명일유치원 교사)

5. 연구 자료에 대한 의견서 ····· 85
신수현 (배화여자대학교부속 배화유치원 학부모)

6.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 ····· 93
김정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7.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및 지원방안요구 ····· 99
정경진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01

주제 발표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김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본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년도 일반과제인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김은영, 강은진, 김혜진, 전홍주, 최명희) 미발간 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정리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그 해 12월 교육부는 '유아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본 정책방향에 따라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개정된 누리과정은 2019년 7월에 고시되어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아정책연구소는 개정 누리과정이 제대로 안착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차로 기획하였다. 2020년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개정된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와 방역 등으로 인하여 개정 취지에 충실하게 적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 2021: 1). 2021년에도 여전히 코로나 이슈가 남아 있었고 원격교육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2020년과는 달리 등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졌다. 2022년 또한 코로나 확진자 2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3월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2022년 초 코로나 상황에서도 등교 중심의 정책을 발표했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원격교육과의 병행을 허용하였다. 3월 이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등원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설문조사를 기초로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개정누리과정 실행 및 인식을 분석한 결과와 함께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례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덧붙여 개정 누리과정의 성과와 과제 및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2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1)]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2018~2020년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 사업」을 통해 누리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연수 등 누리과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2021년 사업부터는 개정 누리과정 지원과 함께 현장에서 새롭게 필요로 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공유하고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다. 2022년 현재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를 위해 유치원 미래교육체제 구축 및 지원 사업과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안심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아 놀이중심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유·보, 유·초 이음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22. 4. 13: 5). 반면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지원 전달체계의 중심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하는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개정 누리과정 관련 보육 컨설팅과 연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여,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힘썼다.

둘째, 유치원 전달체계인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유형이나 대상, 규모와 예산은 편차가 있었다. 지난 3년 간 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교원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누리과정 운영 컨설팅',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수' 사업 등은 여전히 16~17개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유지되었으며,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시행 시도교육청 수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시도교육청 장학관이나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들은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다양한 연수 지원, 우수사례 공유,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의 요구를 하였으며, 조금 더 거시적으로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 정립과 의무학제 편입 및 차별화된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업 중심으로, 어린이집은 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도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중심으로 조사하여 분석함.

셋째, 어린이집 전달체계인 18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 또한 유형은 많이 다르지 않았으나, 대상의 규모와 예산은 편차가 있었다. 개정 누리과정 시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 '누리과정 운영 컨설팅', '연수(교육)' 사업은 대다수의 시도에서 꾸준히 진행되었다. 수업 참관 및 피드백 사업은 2021년에는 5개 시도센터가 추진하였으나, 2022년에는 8개 시도센터가 추진하고 있어 그 수가 확대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나 담당자들은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예산 지원 확대와 교사 처우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인력 지원, 환경 개선,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좀 더 거시적으로는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또한 시도센터에서는 컨설팅 지원과 함께 시군센터와의 협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3 개정 누리과정 실행 및 인식[2)]

가. 조사 대상의 가치관과 전문성

1)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가 뛰어나기를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성격과 태도가 4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성 23.0%, 학업능력 14.9%, 용모, 키 등 신체 8.2%, 예체능적 자질 6.9%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과 태도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21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고, 학업능력에 대한 응답 비율은 약간 증가하였다.[3)] 이러한 결과는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읍면지역의 경우 성격과 태도, 신체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업능력을 선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소도시의 경우 사회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1,060명과 교사 1,068명,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00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3) 자녀가 만 5세 때와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3-1〉 자녀가 뛰어나기를 바라는 점(1순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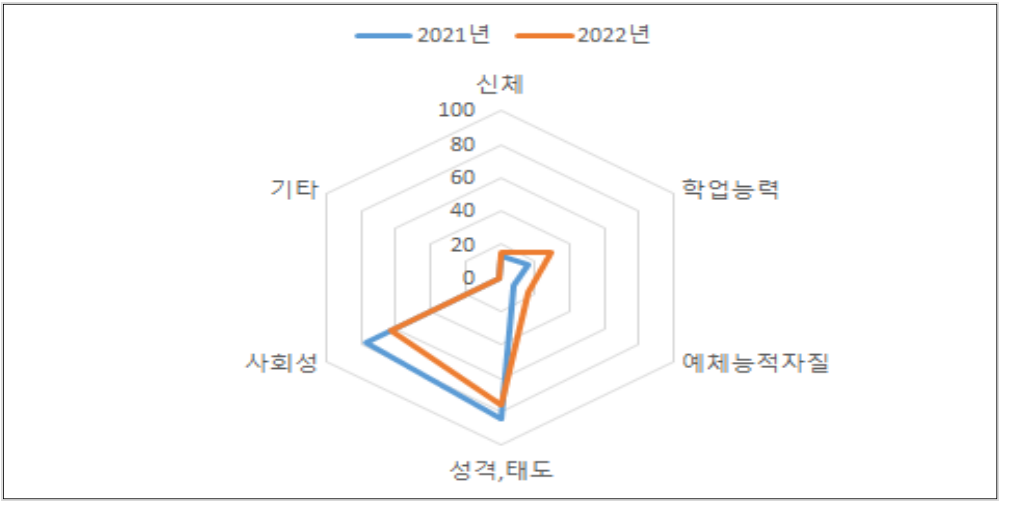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신체	학업 능력	예체능적 자질	성격, 태도	사회성	기타	계(수)
(2021년 조사)	8.9	6.7	3.9	56.3	24.2	-	100.0(1,000)
1순위	8.2	14.9	6.9	47.0	23.0	-	100.0(1,000)
지역 규모							
대도시	7.9	19.4	6.5	46.1	20.2	-	100.0(382)
중소도시	6.9	13.3	7.3	46.7	25.9	-	100.0(452)
읍/면	12.7	9.0	6.6	50.0	21.7	-	100.0(166)
$x^2(df)$	18.51(8)*						

* $p < .05$,.
주: 본 응답은 부모 대상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자료: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p. 119-120. 〈표 Ⅳ-1-1〉에서 2021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자녀가 뛰어나기를 바라는 점에 대해 1순위와 2순위 응답 결과를 보면, 성격과 태도가 75.8%, 사회성 62.7%, 학업능력 29.6%, 예체능적 자질 16.1%, 신체 15.7%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학업능력과 예체능적 자질, 신체에 대한 응답 비율은 상승하였고, 성격과 태도, 사회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3-1] 자녀가 뛰어나기를 바라는 점(1순위+2순위): 부모



2) 교사의 전문성

교사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운영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3.16점~3.30점을 기록하였으며, '나는 실내외 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와 '나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일과 계획을 할 수 있다' 항목의 점수가 각각 3.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가 3.1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있어, '나는 유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놀이 지원 계획을 할 수 있다'와 '나는 놀이 관찰을 통해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의 2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치원 교사의 점수가 어린이집 교사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3-2〉 누리과정 운영 전문성에 대한 인식: 교사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전체	3.16	0.46	(1,068)
	유치원	3.22	0.49	(548)
	어린이집	3.09	0.41	(520)
	t	4.7***		
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할 수 있다	전체	3.19	0.48	(1,068)
	유치원	3.27	0.50	(548)
	어린이집	3.11	0.44	(520)
	t	5.5***		
나는 유아가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전체	3.28	0.49	(1,068)
	유치원	3.33	0.52	(548)
	어린이집	3.22	0.44	(520)
	t	3.9***		
나는 실내외 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전체	3.30	0.48	(1,068)
	유치원	3.34	0.51	(548)
	어린이집	3.26	0.45	(520)
	t	2.7**		
나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일과 계획을 할 수 있다	전체	3.30	0.48	(1,068)
	유치원	3.35	0.50	(548)
	어린이집	3.24	0.45	(520)
	t	3.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나는 유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놀이 지원 계획을 할 수 있다	전체	3.24	0.50	(1,068)
	유치원	3.27	0.55	(548)
	어린이집	3.22	0.45	(520)
	t	1.6		
나는 유아가 놀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전체	3.28	0.49	(1,068)
	유치원	3.34	0.52	(548)
	어린이집	3.22	0.45	(520)
	t	4.0***		
나는 유아의 놀이 경험이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전체	3.26	0.49	(1,068)
	유치원	3.30	0.52	(548)
	어린이집	3.22	0.45	(520)
	t	2.8**		
나는 놀이 관찰을 통해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전체	3.25	0.48	(1,068)
	유치원	3.28	0.52	(548)
	어린이집	3.23	0.44	(520)
	t	1.8		
나는 평가결과를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전체	3.21	0.48	(1,068)
	유치원	3.24	0.50	(548)
	어린이집	3.18	0.45	(520)
	t	2.1*		

* $p < .05$, ** $p < .01$, *** $p < .001$.
주: 본 응답은 교사의 2022년 설문 결과임.

나. 개정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적응에 대한 인식

1)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의 인식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때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받았다는 것을 부모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83.0%가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2020년과 2021년의 62.9%, 62.7%에 비해 약 20%p 상승한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3-3〉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인지 여부: 부모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2020년 조사)	62.9	37.1	100.0 (1,000)
(2021년 조사)	62.7	37.3	100.0 (1,000)
전체	83.0	17.0	100.0 (1,000)
초등 직전 경험기관			
유치원	82.3	17.7	100.0 (689)
어린이집	84.6	15.4	100.0 (311)
$x^2(df)$	0.78(1)		

주: 본 응답은 부모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자료: 1)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 p. 161. 〈표 Ⅴ-2-5〉에서 2020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2)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 135. 〈표 Ⅴ-2-5〉에서 2021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에서의 놀이 중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34.1%, 필요한 편이라는 의견은 61.4%로 전체의 95.5%가 놀이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균점수는 3.29점으로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4〉 유아교육에서의 놀이 중심 교육의 필요성: 부모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임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2020년 조사)	0.1	1.5	52.9	45.5	100.0 (1,000)	3.44	0.53
(2021년 조사)	0.7	3.5	57.5	38.3	100.0 (1,000)	3.33	0.58
전체	0.4	4.1	61.4	34.1	100.0 (1,000)	3.29	0.56
초등 직전 경험기관							
유치원	0.3	3.6	61.2	34.8	100.00 (689)	3.31	0.55
어린이집	0.6	5.1	61.7	32.5	100.00 (311)	3.26	0.58
$x^2(df)/t$	2.23(3)					1.20	

주: 본 응답은 부모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자료: 1)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 p. 161. 〈표 Ⅴ-2-23〉에서 2020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2)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 138. 〈표 Ⅳ-2-8〉에서 2021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2) 개정 누리과정 경험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

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개정 누리과정을 경험한 유아가 초등학교에 어떻게 적응하였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잘 적응하였다는 응답 33.5%, 잘 적응하는 편이라는 응답 61.6%로 95% 이상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경험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유치원을 이용했던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부모에 비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컸음을 알 수 있다.

〈표 3-5〉 개정 누리과정 경험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 정도: 부모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적응하지 못함	적응하지 못하는 편임	잘 적응하는 편임	잘 적응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2	4.7	61.6	33.5	100.00 (1,000)	3.28	0.56
초등 직전 경험기관							
유치원	0.1	4.2	59.9	35.7	100.00 (689)	3.31	0.55
어린이집	0.3	5.8	65.3	28.6	100.00 (311)	3.22	0.56
$x^2(df)/t$	5.67(3)					2.38*	

* $p < .05$, ** $p < .01$, *** $p < .001$.
주: 본 응답은 부모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였다고 응답한 부모 951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적응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경험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 영향을 많이 주었다는 응답은 30.1%, 영향을 준 편이라는 응답은 66.0%로, 96% 이상이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여부, 부모의 학력, 자녀의 직전 경험기관 등 부모와 자녀의 특성과 관계없이 유사하였다.

〈표 3-6〉 초등학교 적응에 유치원/어린이집의 경험이 미친 영향: 부모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영향을 주지 않은 편임	영향을 준 편임	많이 영향을 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1	3.8	66.0	30.1	100.00 (951)	3.26	0.52
초등 직전 경험기관							
유치원	0.2	3.6	64.2	32.0	100.00 (659)	3.28	0.53
어린이집	0.0	4.1	70.2	25.7	100.00 (292)	3.22	0.50
$x^2(df)/t$	4.37(3)					1.81	

* $p < .05$, ** $p < .01$, *** $p < .001$.
주: 본 응답은 부모의 2022년 설문 결과임.

부모들에게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즐거움 및 행복'이 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주도성' 21.6%, '타인배려 증가' 19.5%, '건강한 생활습관' 18.6%, '창의성'(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직전 경험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창의성'은 어린이집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 '타인배려 증가'는 유치원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7〉 초등학교 적응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이 미친 긍정적 영향: 부모

단위: %(명)

구분	건강한 생활습관	주도성	창의성	즐거움 및 행복	타인 배려 증가	기타	계(수)
전체	18.6	21.6	13.5	26.0	19.5	0.9	100.0 (914)
초등 직전 경험기관							
유치원	18.5	22.2	11.2	26.3	21.1	0.6	100.0 (634)
어린이집	18.9	20.0	18.6	25.4	15.7	1.4	100.0 (280)
$x^2(df)$	12.74(5)*						

* $p < .05$.
주: 본 응답은 부모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부모 49명을 대상으로 부적응 유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오래 앉아 있는 것'과 '친구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각각 38.8%로

동일한 비율로 높게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학업 수행의 어려움'(12.2%)과 '기본생활 습관'(8.2%)에서의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 개정 누리과정 관련 교원의 전문성 제고 활동

1)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에 대한 지난 1년간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장의 71.1%, 교사의 75.7%가 연수를 이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비율은 2021년에 비해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여, 원장과 교사 모두 유치원의 이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사립법인, 공립단설, 공립병설, 사립개인 순으로 이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원장의 경우 경력이 적을수록, 기관 규모가 클수록 연수 이수 비율이 높았고, 교사의 경우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의 이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은 다른 전공자에 비해 이수 비율이 높았으며, 교사 또한 유아교육 전공 교사의 이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원장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3-8〉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 이수 여부: 원장과 교사

단위: %(명)

	원장			교사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2020년 조사)	87.7	12.3	100.0 (1,000)	95.4	4.6	100.0 (1,000)
(2021년 조사)	85.5	14.5	100.0 (1,000)	91.2	8.8	100.0 (1,000)
전체	71.1	28.9	100.0 (1,060)	75.7	24.3	100.0 (1,068)
소속기관						
유치원	74.2	25.8	100.0 (534)	82.5	17.5	100.0 (548)
어린이집	68.1	31.9	100.0 (526)	68.5	31.5	100.0 (520)
$x^2(df)$	4.796(1)*			28.476(1)***		
유치원 유형						
공립단설	85.5	14.5	100.0 (69)	89.2	10.8	100.0 (74)
공립병설	71.3	28.7	100.0 (209)	86.7	13.3	100.0 (226)
사립법인	70.3	29.7	100.0 (74)	90.7	9.3	100.0 (75)
사립개인	74.7	25.3	100.0 (182)	70.5	29.5	100.0 (173)
$x^2(df)$	6.148(3)			25.729(3)***		

구분	원장			교사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경력						
5년 미만	76.5	23.5	100.0 (260)	85.7	14.3	100.0 (91)
5-10년 미만	71.8	28.2	100.0 (309)	75.8	24.2	100.0 (421)
10년 이상	67.8	32.2	100.0 (491)	73.9	26.1	100.0 (556)
$x^2(df)$	6.399(2)*			5.911(2)		
기관 규모						
50인 미만	67.3	32.7	100.0 (437)	74.6	25.4	100.0 (433)
50-100인 미만	72.6	27.4	100.0 (387)	74.7	25.3	100.0 (391)
100인 이상	75.8	24.2	100.0 (236)	79.1	20.9	100.0 (244)
$x^2(df)$	6.130(2)*			2.036(2)		
최초 자격 취득 기관						
보육교사 교육원	60.5	39.5	100.0 (86)	67.7	32.3	100.0 (62)
2-3년제 대학	71.1	28.9	100.0 (336)	72.7	27.3	100.0 (488)
4년제 대학	69.5	30.5	100.0 (259)	81.8	18.2	100.0 (329)
대학원	74.8	25.2	100.0 (294)	82.8	17.2	100.0 (87)
그 외	74.1	25.9	100.0 (85)	68.6	31.4	100.0 (102)
$x^2(df)$	7.429(4)			16.133(4)**		
전공1						
유아교육학	75.1	24.9	100.0 (771)	78.0	22.0	100.0 (785)
보육학	68.4	31.6	100.0 (38)	63.9	36.1	100.0 (83)
아동학	63.2	36.8	100.0 (68)	72.5	27.5	100.0 (69)
아동복지학	62.5	37.5	100.0 (80)	71.1	28.9	100.0 (90)
기타	54.4	45.6	100.0 (103)	70.7	29.3	100.0 (41)
$x^2(df)$	25.102(4)***			10.472(4)*		
전공2						
유아교육학	75.1	24.9	100.0 (771)	78.0	22.0	100.0 (785)
그 외	60.6	39.4	100.0 (289)	69.3	30.7	100.0 (283)
$x^2(df)$	21.653(1)***			8.556(1)**		

* $p < .05$, ** $p < .01$, *** $p < .001$

주: 본 응답은 교사와 원장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자료: 1)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 p. 163. 〈표 Ⅴ-2-7〉에서 2020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2)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 141. 〈표 Ⅳ-2-11〉에서 2021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이유로 원장은 시간 부족 27.1%, 정보 부족 26.8% 순이었고, 교사의 경우 또한 시간 부족 27.7%, 정보 부족 22.8% 순으로 나타났다. 원장과 교사 모두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든 비율이 2021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소속기관에 따라 유치원 원장은 정보 부족, 시간 부족 순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시간 부족, 정보 부족 순으로 많이 응답한 데 비해 유치원 교사는 시간 부족, 정보 부족 순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정보 부족, 시간 부족 순으로 응답하여 서로 차이가 있었다.

〈표 3-9〉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이유: 원장과 교사

단위: %(명)

구분	시간 부족	정보 부족	연수 신청이 어려움	연수 장소 접근의 어려움	기타	계(수)
원장						
(2020년 조사)	31.4	13.9	27.6	-	27.0	100.0 (123)
(2021년 조사)	20.0	28.3	13.8	11.7	26.2	100.0 (145)
전체	27.1	26.8	10.1	9.5	26.5	100.0 (306)
소속기관						
유치원	26.8	30.4	4.3	8.7	29.7	100.0 (138)
어린이집	27.4	23.8	14.9	10.1	23.8	100.0 (168)
$\chi^2(df)$	10.706(4)*					
교사						
(2020년 조사)	18.6	23.0	33.6	-	24.9	100.0 (46)
(2021년 조사)	21.6	28.4	9.1	11.4	29.5	100.0 (88)
전체	27.7	25.4	6.2	8.8	31.9	100.0 (260)
소속기관						
유치원	41.7	22.9	1.0	6.3	28.1	100.0 (96)
어린이집	19.5	26.8	9.1	10.4	34.1	100.0 (164)
$\chi^2(df)$	19.409(4)**					

** $p < .01$.
주: 본 응답은 교사와 원장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자료: 1)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 p. 167 〈표 Ⅴ-2-11〉에서 2020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2)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 147. 〈표 Ⅳ-2-15〉에서 2021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집합연수와 원격연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원장의 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집합연수

3.00점, 원격연수 3.04점으로 나타났으며,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모두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유치원 원장의 만족도가 어린이집 원장에 비해 더 높았다. 원장의 경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의 원장에 비해 10년 이상의 경력 원장의 만족도가 더 낮았다. 교사의 경우는 집합연수 3.04점, 원격연수 3.06점으로 나타났으며, 원격연수에서 유치원 교사의 만족도가 어린이집 교사의 만족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장학 및 컨설팅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원장의 31.2%와 교사의 35.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원장과 교사 모두 유치원의 참여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공립단설유치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또한 규모 100인 이상인 기관과 대학원 졸업 및 유아교육 전공자의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3-10〉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 원장과 교사

단위: %(명)

구분	원장			교사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2020년 조사)	23.1	76.9	100.0 (1,000)	25.7	74.3	100.0 (1,000)
(2021년 조사)	30.1	69.9	100.0 (1,000)	36.0	64.0	100.0 (1,000)
전체	31.2	68.8	100.0 (1,060)	35.2	64.8	100.0 (1,068)
소속기관						
유치원	40.1	59.9	100.0 (534)	44.0	56.0	100.0 (548)
어린이집	22.2	77.8	100.0 (526)	26.0	74.0	100.0 (520)
$\chi^2(df)$	39.233(1)***			37.967(1)***		
유치원 유형						
공립단설	58.0	42.0	100.0 (69)	66.2	33.8	100.0 (74)
공립병설	32.1	67.9	100.0 (209)	42.0	58.0	100.0 (226)
사립법인	48.6	51.4	100.0 (74)	48.0	52.0	100.0 (75)
사립개인	39.0	61.0	100.0 (182)	35.3	64.7	100.0 (173)
$\chi^2(df)$	17.147(3)**			21.029(3)***		

구분	원장			교사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기관 규모						
50인 미만	22.7	77.3	100.0 (437)	30.5	69.5	100.0 (433)
50~100인 미만	31.5	68.5	100.0 (387)	33.8	66.2	100.0 (391)
100인 이상	46.6	53.4	100.0 (236)	45.9	54.1	100.0 (244)
$x^2(df)$	40.975(2)***			16.826(2)***		
최초자격 취득기관2						
보육교사 교육원	20.9	79.1	100.0 (86)	17.7	82.3	100.0 (62)
2-3년제 대학	28.0	72.0	100.0 (336)	32.2	67.8	100.0 (488)
4년제 대학	32.0	68.0	100.0 (259)	42.6	57.4	100.0 (329)
대학원	38.4	61.6	100.0 (294)	46.0	54.0	100.0 (87)
그 외	27.1	72.9	100.0 (85)	27.5	72.5	100.0 (102)
$x^2(df)$	13.781(4)**			25.158(4)***		
전공1						
유아교육학	34.8	65.2	100.0 (771)	38.6	61.4	100.0 (785)
보육학	13.2	86.8	100.0 (38)	26.5	73.5	100.0 (83)
아동학	25.0	75.0	100.0 (68)	24.6	75.4	100.0 (69)
아동복지학	25.0	75.0	100.0 (80)	31.1	68.9	100.0 (90)
기타	20.4	79.6	100.0 (103)	14.6	85.4	100.0 (41)
$x^2(df)$	18.565(4)**			18.361(4)**		
전공2						
유아교육학	34.8	65.2	100.0 (771)	38.6	61.4	100.0 (785)
그 외	21.8	78.2	100.0 (289)	25.8	74.2	100.0 (283)
$x^2(df)$	16.442(1)***			14.949(1)***		

** $p < .01$, *** $p < .001$

주: 본 응답은 교사와 원장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자료: 1)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 p. 169 〈표 Ⅴ-2-13〉에서 2020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2)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 152-153. 〈표 Ⅳ-2-22〉에서 2021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장학이나 컨설팅을 경험한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원장의 경우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69.8%,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22.7%로 92.5%가 장학이나 컨설팅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평균점수 또한 2021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다. 교사의 경우도 만족하는 편이 66.5%, 매우 만족이 23.9%로 전체의 90.4%가 만족

하고 있었고, 평균점수는 3.14점으로 2021년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다. 그러나 원장과 교사의 특성에 따른 응답 경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학습공동체

원장의 65.6%와 교사의 56.1%가 개정 누리과정 관련 학습공동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치원의 경험 비율이 어린이집에 비해 매우 높았다. 어린이집은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치원의 경우 사립보다는 공립의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공립단설의 경우 80% 이상으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100인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관에서 학습공동체를 많이 운영하고 있었다. 원장과 교사 모두 최초 자격취득 기관에 따라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자격을 취득한 원장은 참여 비율이 가장 낮았고, 대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한 교사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유아교육 전공자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원장과 4세 담당 교사의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 원장과 교사

단위: %(명)

구분	원장			교사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34.4	65.6	100.0 (1,060)	43.9	56.1	100.0 (1,068)
소속기관						
유치원	47.8	52.2	100.0 (534)	58.2	41.8	100.0 (548)
어린이집	20.9	79.1	100.0 (526)	28.8	71.2	100.0 (520)
$x^2(df)$	84.553(1)***			93.418(1)***		
유치원 유형						
공립단설	85.5	14.5	100.0 (69)	81.1	18.9	100.0 (74)
공립병설	52.6	47.4	100.0 (209)	68.6	31.4	100.0 (226)
사립법인	31.1	68.9	100.0 (74)	52.0	48.0	100.0 (75)
사립개인	34.6	65.4	100.0 (182)	37.6	62.4	100.0 (173)
$x^2(df)$	62.248(3)***			57.391(3)***		
경력						
5년 미만	46.5	53.5	100.0 (260)	47.3	52.7	100.0 (91)
5-10년 미만	38.2	61.8	100.0 (309)	46.6	53.4	100.0 (421)
10년 이상	25.7	74.3	100.0 (491)	41.4	58.6	100.0 (556)
$x^2(df)$	35.537(2)***			3.069(2)		

구분	원장			교사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기관 규모						
50인 미만	28.4	71.6	100.0 (437)	41.3	58.7	100.0 (433)
50인-100인 미만	34.6	65.4	100.0 (387)	40.7	59.3	100.0 (391)
100인 이상	45.3	54.7	100.0 (236)	53.7	46.3	100.0 (244)
$x^2(df)$	19.542(2)***			12.306(2)**		
최초 자격 취득 기관2						
보육교사 교육원	17.4	82.6	100.0 (86)	30.6	69.4	100.0 (62)
2-3년제 대학	36.3	63.7	100.0 (336)	38.7	61.3	100.0 (488)
4년제 대학	35.5	64.5	100.0 (259)	51.4	48.6	100.0 (329)
대학원	37.1	62.9	100.0 (294)	60.9	39.1	100.0 (87)
그 외	31.8	68.2	100.0 (85)	38.2	61.8	100.0 (102)
$x^2(df)$	12.834(4)*			28.730(4)***		
전공1						
유아교육학	40.6	59.4	100.0 (771)	47.8	52.2	100.0 (785)
보육학	13.2	86.8	100.0 (38)	34.9	65.1	100.0 (83)
아동학	17.6	82.4	100.0 (68)	40.6	59.4	100.0 (69)
아동복지학	21.3	78.8	100.0 (80)	24.4	75.6	100.0 (90)
기타	17.5	82.5	100.0 (103)	36.6	63.4	100.0 (41)
$x^2(df)$	48.355(4)***			22.512(4)***		
전공2						
유아교육학	40.6	59.4	100.0 (771)	47.8	52.2	100.0 (785)
그 외	18.0	82.0	100.0 (289)	33.2	66.8	100.0 (283)
$x^2(df)$	47.570(1)***			17.892(1)***		
담당 연령						
3세				43.5	56.5	100.0 (230)
4세				58.3	41.7	100.0 (168)
5세				43.3	56.7	100.0 (353)
혼합연령				37.2	62.8	100.0 (317)
$x^2(df)$				20.007(3)***		

* $p < .05$, ** $p < .01$, *** $p < .001$.
주: 본 응답은 교사와 원장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공동체에 대한 만족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원장은 평균 3.18점, 교사는 평균 3.19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장과 교사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4) 전문성 제고 활동 및 요구

교사를 대상으로 기관 혹은 지역 내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는 활동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원내 자율장학이 5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원내 멘토링 32.1% 동아리나 소모임 31.3%, 강사초빙 원내 연수 19.7% 등이었다. 동아리나 소모임, 타 기관 참관은 공립유치원의 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원내 멘토링의 경우 공립병설 유치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어린이집의 유형별로 보면 동아리나 소모임은 국공립과 직장의 비율이 높았고, 특히 원내 멘토링은 직장어린이집의 참여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규모가 큰 기관에서는 원내 자율장학, 원내 멘토링, 강사초빙 원내 연수 등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경력 5년 미만의 교사는 동아리나 소모임, 원내 자율장학을,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는 원내 멘토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초 자격취득 기관별로 보면 대학원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활동 비율이 높았다.

〈표 3-12〉 기관 혹은 지역 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는 활동(복수응답): 교사

단위: %(명)

구분	동아리나 소모임	원내 자율장학	원내 멘토링	강사초빙 원내연수	타기관 참관	기타	참여하는 것 없음	(수)
(2020년 조사)	25.2	46.8	23.1	14.8	8.1	6.2	-	(1,000)
(2021년 조사)	29.7	56.0	31.5	17.5	9.2	4.9	17.4	(1,000)
전체	31.3	59.1	32.1	19.7	12.1	6.3	17.2	(1,068)
유치원	50.4	69.5	28.6	23.4	14.1	5.7	10.8	(548)
어린이집	11.2	48.1	35.8	15.8	10.0	6.9	24.0	(520)
유치원 유형								
공립단설	77.0	89.2	32.4	45.9	24.3	9.5	0.0	(74)
공립병설	77.4	63.7	9.7	20.4	19.0	7.5	6.6	(226)
사립법인	22.7	73.3	41.3	14.7	6.7	2.7	20.0	(75)
사립개인	15.6	67.1	46.2	21.4	6.4	2.9	16.8	(17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9.4	56.0	34.3	17.2	10.4	6.0	23.1	(134)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	9.1	43.0	35.5	11.6	8.3	3.3	28.9	(121)
민간	6.5	38.3	35.3	15.9	10.4	9.5	25.9	(201)
직장	12.5	71.9	40.6	20.3	10.9	7.8	10.9	(64)

구분	동아리나 소모임	원내 자율장학	원내 멘토링	강사초빙 원내연수	타기관 참관	기타	참여하는 것 없음	(수)
지역								
대도시	27.5	63.6	34.7	20.1	11.6	5.8	14.9	(363)
중소도시	33.2	61.3	32.7	20.9	12.8	6.0	15.2	(382)
읍/면	33.1	51.4	28.5	17.6	11.8	7.1	22.3	(323)
기관 규모								
50인 미만	38.8	49.7	20.3	15.7	13.6	6.0	21.0	(433)
50인-100인 미만	22.0	60.1	35.8	19.2	10.2	7.2	17.1	(391)
100인 이상	32.8	74.2	47.1	27.5	12.3	5.3	10.7	(244)
프로그램1								
일반	35.1	57.9	29.6	19.1	11.8	6.6	17.2	(845)
몬테소리	4.7	65.1	41.9	16.3	7.0	2.3	30.2	(43)
레지오	50.0	88.9	61.1	33.3	22.2	0.0	11.1	(18)
프로젝트	16.7	65.3	47.2	22.2	5.6	5.6	11.1	(72)
생태	15.2	54.5	31.8	21.2	19.7	4.5	21.2	(66)
기타	16.7	62.5	37.5	25.0	20.8	12.5	8.3	(24)
프로그램2								
일반	35.1	57.9	29.6	19.1	11.8	6.6	17.2	(845)
몬테소리	4.7	65.1	41.9	16.3	7.0	2.3	30.2	(43)
그 외	19.4	63.3	41.7	23.3	14.4	5.6	14.4	(180)
경력								
5년 미만	42.9	71.4	20.9	17.6	14.3	6.6	13.2	(91)
5-10년 미만	28.0	57.5	31.8	18.5	9.5	5.9	19.5	(421)
10년 이상	31.8	58.3	34.2	20.9	13.7	6.5	16.2	(556)
최초 자격 취득 기관1								
보육교사 교육원	4.8	40.3	33.9	12.9	4.8	11.3	27.4	(62)
2년제 대학	22.4	52.7	28.6	16.6	8.7	6.6	23.2	(241)
3년제 대학	21.9	58.3	39.7	19.4	10.9	5.7	19.4	(247)
4년제 대학	47.1	68.4	27.1	21.3	14.9	5.8	10.3	(329)
대학원	55.2	69.0	36.8	34.5	23.0	8.0	6.9	(87)
한국방송통신대학	28.2	69.2	28.2	7.7	7.7	2.6	12.8	(39)
사이버 대학	21.1	36.8	42.1	15.8	15.8	0.0	31.6	(19)
학점은행제	11.4	36.4	34.1	18.2	6.8	6.8	27.3	(44)

구분	동아리나 소모임	원내 자율장학	원내 멘토링	강사초빙 원내연수	타기관 참관	기타	참여하는 것 없음	(수)
최초 자격 취득 기관2								
보육교사 교육원	4.8	40.3	33.9	12.9	4.8	11.3	27.4	(62)
2-3년제 대학	22.1	55.5	34.2	18.0	9.8	6.1	21.3	(488)
4년제 대학	47.1	68.4	27.1	21.3	14.9	5.8	10.3	(329)
대학원	55.2	69.0	36.8	34.5	23.0	8.0	6.9	(87)
그 외	19.6	49.0	33.3	13.7	8.8	3.9	22.5	(102)
전공1								
유아교육학	37.5	62.3	31.6	20.5	13.5	6.5	15.3	(785)
보육학	15.7	44.6	37.3	18.1	7.2	4.8	24.1	(83)
아동학	20.3	55.1	36.2	26.1	7.2	7.2	14.5	(69)
아동복지학	5.6	46.7	30.0	13.3	10.0	5.6	31.1	(90)
기타	19.5	61.0	29.3	9.8	7.3	4.9	14.6	(41)
전공2								
유아교육학	37.5	62.3	31.6	20.5	13.5	6.5	15.3	(785)
그 외	14.1	50.2	33.6	17.3	8.1	5.7	22.6	(283)
담당 연령								
3세	22.2	57.4	35.2	20.0	9.1	3.0	20.0	(230)
4세	40.5	67.9	32.7	20.8	13.1	10.7	13.7	(168)
5세	31.2	65.7	35.1	23.5	9.6	6.2	13.0	(353)
혼합연령	33.1	48.3	26.2	14.5	16.4	6.3	21.8	(317)

주: 본 응답은 교사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자료: 1)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 p. 174 〈표 Ⅴ-2-19〉에서 2020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2)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 153-154. 〈표 Ⅳ-2-23〉에서 2021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고 싶은 활동을 조사한 결과, 타 기관 참관이 29.7%, 강사초빙 원내 연수 28.7%, 동아리나 소모임 20.1% 등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기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13〉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고 싶은 활동: 교사

단위: %(명)

구분	동아리 나 소모임	원내 자율장학	원내 멘토링	강사초빙 원내연수	타기관 참관	기타	참여를 원하지 않음	계(수)	
(2020년 조사)	20.0	4.8	7.2	29.6	30.7	1.0	6.7	100.0	(1,000)
(2021년 조사)	21.8	6.0	7.3	27.9	30.8	0.6	5.6	100.0	(1,000)
전체	20.1	7.0	6.6	28.7	29.7	0.7	7.2	100.0	(1,068)
소속기관									
유치원	26.1	7.5	4.2	24.1	31.4	0.5	6.2	100.0	(548)
어린이집	13.8	6.5	9.0	33.5	27.9	1.0	8.3	100.0	(520)
$x^2(df)$	N/A								

주: 본 응답은 교사와 원장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자료: 1)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 p. 175. 〈표 Ⅴ-2-28〉에서 2020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2)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 153-154. 〈표 Ⅳ-2-23〉에서 2021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라. 개정 누리과정 운영 실태

1) 누리과정 운영 일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일과 운영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운영시간은 총 5시간 53분으로 2021년 조사결과에 비해 18분가량 감소하였다. 유치원의 운영시간은 4시간 53분,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6시간 56분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2시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두 기관의 운영시간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타 시간을 제외한 모든 일과 영역에서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이 또한 대체로 전체 운영시간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시간은 전체적으로 3시간 42분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3시간 11분(일과시간의 65.1%), 어린이집 4시간 16분(일과시간의 65.1%)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1시간 5분 더 길었으나 배분 비율은 동일하였다. 실내놀이는 유치원 85분(일과시간의 29.0%), 어린이집 2시간 38분(일과시간의 37.8%), 실외놀이는 유치원 1시간 4분(일과시간의 21.7%), 어린이집 1시간 8분(일과시간의 16.3%)이었으며, 교사주도활동은 유치원 42분

(일과시간의 14.4%), 어린이집 31분(일과시간의 7.4%)으로 유치원의 교사주도활동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시간은 총 1시간 50분(일과시간의 31.3%)이었으며, 유치원 1시간 25분(일과시간의 29.0%), 어린이집 2시간 17분(일과시간의 33.1%)으로 어린이집의 일상생활시간이 52분 더 길었다. 점심 및 간식은 유치원 54분(일과시간의 18.3%), 어린이집 65분(일과시간의 15.7%)이었으며, 낮잠 및 휴식은 유치원 7분(일과시간의 2.5%), 어린이집 41분(일과시간의 9.8%)으로 두 기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기본생활시간은 유치원 24분(일과시간의 8.1%), 어린이집 31분(일과시간의 7.5%)이었다.

전이 및 기타 시간은 전체적으로 20분(일과시간의 0.3%)이었으며, 유치원 17분(일과시간의 0.4%), 어린이집 23분(일과시간의 0.2%)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이시간은 유치원 16분(일과시간의 5.5%), 어린이집 21분(일과시간의 5.1%)으로 어린이집의 전이시간이 더 길었다.

〈표 3-14〉 누리과정 일과 운영 시간: 교사

단위: 분(%)

구분	전체(n=1,000)		유치원(n=500)		어린이집(n=500)		*t*
	평균 (%)	표준 편차	평균 (%)	표준 편차	평균 (%)	표준 편차	
전체	352.54	113.07	292.68	78.86	415.62	109.37	-21.0***
(2021년 조사)	370.75	115.20	291.18	70.58	450.32	94.33	-30.2***
(2020년 조사)	378.55	112.97	297.77	73.54	459.32	84.06	-32.3***
교육시간							
실내놀이	120.40 (34.2)	64.81	85.02 (29.0)	40.12	157.69 (37.9)	64.99	-21.9***
실외놀이	65.42 (18.6)	22.16	63.49 (21.7)	23.51	67.46 (16.3)	20.48	-2.9**
교사주도활동	36.47 (10.4)	25.37	42.08 (14.4)	25.54	30.56 (7.4)	23.81	7.6***
소계	222.29 (63.1)	75.93	190.58 (65.1)	58.78	255.71 (61.5)	77.66	-15.4***
(2021년 조사)	228.26	73.66	188.28	51.21	268.24	70.97	-20.4***
(2020년 조사)	229.61	68.25	190.98	50.02	268.24	61.90	-21.7***

구분	전체(n=1,000)		유치원(n=500)		어린이집(n=500)		*t*
	평균 (%)	표준 편차	평균 (%)	표준 편차	평균 (%)	표준 편차	
일상생활시간							
점심 및 간식	59.38 (16.9)	22.65	53.72 (18.3)	19.06	65.35 (15.7)	24.54	-8.6***
낮잠 및 휴식	23.62 (6.7)	32.21	7.30 (2.5)	14.64	40.83 (9.8)	36.47	-19.5***
기본생활	27.40 (7.8)	16.46	23.80 (8.1)	13.50	31.19 (7.5)	18.36	-7.5***
소계	110.40 (31.3)	50.88	84.82 (29.0)	31.51	137.37 (33.1)	53.45	-19.4***
(2021년 조사)	119.17	54.76	85.52	29.47	152.82	53.53	-24.6***
(2020년 조사)	124.80	58.47	87.78	34.38	161.82	54.01	-25.9***
전이 및 기타시간							
전이시간	18.61 (5.3)	17.58	15.97 (5.5)	15.89	21.40 (5.1)	18.82	-5.1***
기타	1.23 (0.3)	7.08	1.31 (0.4)	7.01	1.13 (0.2)	7.16	0.4
소계	19.84 (2.3)	19.37	17.28 (5.9)	17.79	22.54 (5.1)	20.57	-4.5***
(2021년 조사)	23.32	23.08	17.38	18.84	29.26	25.32	-8.4***
(2020년 조사)	25.02	30.14	19.97	29.31	30.06	30.15	-5.4***

** $p < .01$, *** $p < .001$
주: 본 응답은 교사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자료: 1)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 p. 186. 〈표 Ⅴ-3-1〉에서 2020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2)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 159-160. 〈표 Ⅳ-3-1〉에서 2021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2) 개정 누리과정 목표 달성 정도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목표 달성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원장의 경우 '건강한 사람'이 3.23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고, 그 다음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람' 3.22점, '창의적인 사람' 3.19점, 감성이 풍부한 사람 3.17점, 자주적인 사람 3.15점 순이었다. 교사 또한 '건강한 사람'이 3.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 사는 사람' 3.30점, '자주적인 사람' 3.28점, '창의적인 사람' 3.26점, '감성이 풍부한 사람' 3.21점

순이었다.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보다는 유치원 교사와 원장이 인간상과 목표 달성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다르게 부모는 '더불어 사는 사람'에 대한 점수가 3.1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한 사람'과 '창의적인 사람' 각 3.07점, '감성이 풍부한 사람' 3.02점, '자주적인 사람' 2.99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5〉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목표 달성 정도: 원장, 교사, 부모

단위: %(명), 점

구분		원장 (n=1,060)			교사 (n=1,068)			부모 (n=1,000)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① 건강한 사람	전체	3.23	0.56	(1,060)	3.31	0.52	(1,068)	3.07	0.57	(1,000)
	유치원	3.30	0.59	(534)	3.38	0.55	(548)	3.09	0.55	(689)
	어린이집	3.17	0.51	(526)	3.25	0.49	(520)	3.04	0.61	(311)
	t	3.9***			4.0***			1.33		
② 자주적인 사람	전체	3.15	0.59	(1,060)	3.28	0.56	(1,068)	2.99	0.67	(1,000)
	유치원	3.24	0.61	(534)	3.33	0.58	(548)	2.99	0.68	(689)
	어린이집	3.06	0.55	(526)	3.22	0.53	(520)	3.00	0.64	(311)
	t	5.2***			3.5**			−0.32		
③ 창의적인 사람	전체	3.19	0.61	(1,060)	3.26	0.58	(1,068)	3.07	0.69	(1,000)
	유치원	3.29	0.63	(534)	3.30	0.60	(548)	3.07	0.70	(689)
	어린이집	3.10	0.56	(526)	3.22	0.56	(520)	3.06	0.68	(311)
	t	5.2***			2.2*			0.15		
④ 감성이 풍부한 사람	전체	3.17	0.61	(1,060)	3.21	0.59	(1,068)	3.02	0.68	(1,000)
	유치원	3.25	0.63	(534)	3.24	0.61	(548)	3.04	0.68	(689)
	어린이집	3.10	0.59	(526)	3.17	0.56	(520)	2.99	0.70	(311)
	t	4.1***			1.9			0.98		
⑤ 더불어 사는 사람	전체	3.22	0.63	(1,060)	3.30	0.59	(1,068)	3.12	0.70	(1,000)
	유치원	3.27	0.65	(534)	3.35	0.59	(548)	3.13	0.67	(689)
	어린이집	3.16	0.60	(526)	3.25	0.58	(520)	3.09	0.75	(311)
	t	2.8**			2.7**			0.73		

주: 1) ① 건강한 사람: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② 자주적인 사람: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③ 창의적인 사람: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④ 감성이 풍부한 사람: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⑤ 더불어 사는 사람: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2) 본 응답은 교사, 원장, 부모의 2022년 설문 결과임.

3) 개정 누리과정 실천

개정 누리과정 관련 교수·학습 내용에 대한 원장의 실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가 3.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3.54점,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3.53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가 3.45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사의 응답 결과를 보면,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가 3.54점으로 가장 높고,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3.51점,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3.50점 등으로 나타났으며,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가 3.43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원장과 교사 모두 모든 항목에서 유치원의 점수가 어린이집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에 비해 2022년에는 원장의 경우 점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교사의 경우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항목에서만 소폭 감소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증가하였다.

〈표 3-16〉 개정 누리과정 교수·학습 내용의 실천 정도: 원장과 교사

단위: 점(명)

구분		원장			교사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①	(2021년 조사)	3.61	0.50	(1,000)	3.54	0.50	(1,000)
	전체	3.54	0.51	(1,060)	3.54	0.51	(1,068)
	유치원	3.65	0.49	(534)	3.62	0.50	(548)
	어린이집	3.44	0.51	(526)	3.45	0.51	(520)
	t	7.0***			5.6***		
②	(2021년 조사)	3.62	0.49	(1,000)	3.53	0.52	(1,000)
	전체	3.56	0.52	(1,060)	3.51	0.51	(1,068)
	유치원	3.66	0.50	(534)	3.57	0.52	(548)
	어린이집	3.46	0.52	(526)	3.45	0.51	(520)
	t	6.4***			3.8***		

구분		원장			교사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③	(2021년 조사)	3.57	0.51	(1,000)	3.44	0.53	(1,000)
	전체	3.52	0.52	(1,060)	3.46	0.53	(1,068)
	유치원	3.62	0.50	(534)	3.52	0.54	(548)
	어린이집	3.42	0.52	(526)	3.39	0.51	(520)
	t	6.5***			4.2***		
④	(2021년 조사)	3.56	0.50	(1,000)	3.47	0.52	(1,000)
	전체	3.51	0.52	(1,060)	3.48	0.51	(1,068)
	유치원	3.60	0.51	(534)	3.55	0.52	(548)
	어린이집	3.42	0.52	(526)	3.41	0.50	(520)
	t	5.8***			4.5***		
⑤	(2021년 조사)	3.53	0.52	(1,000)	3.41	0.52	(1,000)
	전체	3.48	0.54	(1,060)	3.43	0.52	(1,068)
	유치원	3.59	0.52	(534)	3.51	0.52	(548)
	어린이집	3.37	0.54	(526)	3.34	0.51	(520)
	t	6.9***			5.4***		
⑥	(2021년 조사)	3.57	0.52	(1,000)	3.49	0.53	(1,000)
	전체	3.53	0.51	(1,060)	3.50	0.52	(1,068)
	유치원	3.60	0.51	(534)	3.56	0.52	(548)
	어린이집	3.45	0.51	(526)	3.43	0.51	(520)
	t	4.8***			4.1***		
⑦	(2021년 조사)	3.51	0.53	(1,000)	3.41	0.52	(1,000)
	전체	3.45	0.55	(1,060)	3.44	0.53	(1,068)
	유치원	3.55	0.54	(534)	3.50	0.55	(548)
	어린이집	3.36	0.54	(526)	3.38	0.50	(520)
	t	5.8***			3.8***		

*** $p < .001$

주: 1) ①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②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③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④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⑥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⑦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2) 본 응답은 교사, 원장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자료: 1)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 p. 194. 〈표 Ⅴ-3-5〉에서 2020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2)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 166. 〈표 Ⅳ-3-4〉에서 2021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4)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기관 운영 및 이용

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미친 영향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등원교육과 원격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됨'이 3.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에 미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등원과 휴원의 반복으로 놀이의 연속성을 가지기 어려움'이 3.10점이었으며, 이 또한 유치원의 점수가 더 높았다. '유아들이 모두 등원하지 않아 유아 대 교사 비율이 낮아져 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을 잘 실행함'이 2.6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원격교육 실행으로 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움'도 유치원 교사가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7〉 코로나19가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미친 영향 내용: 교사

단위: %(명), 점

구분	전체 (n=1,060)		유치원 (n=548)		어린이집 (n=520)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혼자놀이를 권장하여 놀이를 통한 또래 간 상호작용 감소함	2.88	0.74	3.02	0.71	2.74	0.75	6.3***
등원과 휴원의 반복으로 놀이의 연속성을 가지기 어려움	3.10	0.78	3.14	0.80	3.06	0.76	1.5
원격교육 실행으로 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움	2.97	0.87	3.18	0.80	2.74	0.89	8.6***
등원교육과 원격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됨	3.26	0.84	3.56	0.67	2.95	0.89	12.8***
유아들이 모두 등원하지 않아 유아 대 교사 비율이 낮아져 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을 잘 실행함	2.65	0.90	2.63	0.94	2.68	0.86	−0.9
유아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별 놀이 중심으로 운영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짐	2.68	0.78	2.61	0.82	2.76	0.73	−3.1**

** $p < .01$, *** $p < .001$.
주: 본 응답은 교사의 2022년 설문 결과임.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2021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및 휴원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전체의 47.1%는

원격교육을 경험하였으며, 73.8%는 휴원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부모와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원격 교육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1년 조사는 당시 5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조사 시점만 다를 뿐 유사한 대상이라 볼 수 있다. 2022년도 조사에서 원격교육이나 휴원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이 동일하지 않고 2021년 조사 시점 이후 나머지 재원 기간 동안 추가로 원격교육이나 휴원의 경험을 더 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18〉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및 휴원 경험: 부모

단위: %(명)

구분	원격교육		휴원		계(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021년 조사)	35.9	64.1	72.0	28.0	100.0 (1,000)
전체	47.1	52.9	73.8	26.2	100.0 (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41.6	58.4	72.7	27.3	100.0 (77)
전문대졸	39.6	60.4	67.9	32.1	100.0 (159)
4년제대학졸	51.8	48.2	74.8	25.2	100.0 (616)
대학원졸 이상	38.5	61.5	76.4	23.6	100.0 (148)
$x^2(df)$	14.33(3)**		3.73(3)		
지역 규모					
대도시	51.3	48.7	73.6	26.4	100.0 (382)
중소도시	49.3	50.7	75.7	24.3	100.0 (452)
읍/면	31.3	68.7	69.3	30.7	100.0 (166)
$x^2(df)$	20.20(2)***		2.58(2)		

* $p < .05$, ** $p < .01$, *** $p < .001$.
주: 본 응답은 부모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자료: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 180. 〈표 Ⅴ-3-20〉에서 2021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마.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성과

1) 기관의 성과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기관의 달성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원장의 경우 일과의 융통성 3.41점, 소통하는 조직문화 3.35점, 물리적 환경의 개방성 3.34점, 문서 간소화 3.24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는 일과의 융통성 3.32점, 물리적 환경의 개방성 3.19점, 소통하는 조직문화 3.12점, 문서 간소화 2.89점 순이었다. 모든 항목에 있어 원장과 교사 모두 유치원의 점수가 어린이집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3-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기관의 달성 정도: 원장과 교사

단위: 점(명)

구분	일과의 융통성	문서 간소화	물리적 환경의 개방성	소통하는 조직문화	계(수)
원장					
전체	3.41 0.54	3.24 0.70	3.34 0.61	3.35 0.58	100.0 (1,060)
유치원	3.52 0.54	3.37 0.70	3.42 0.62	3.45 0.58	100.0 (534)
어린이집	3.30 0.52	3.11 0.68	3.27 0.58	3.26 0.55	100.0 (526)
$x^2(df)$	6.9***	6.0***	4.0***	5.5***	
교사					
전체	3.32 0.54	2.89 0.75	3.19 0.63	3.12 0.65	100.0 (1,068)
유치원	3.41 0.54	2.95 0.78	3.23 0.66	3.14 0.68	100.0 (548)
어린이집	3.23 0.52	2.83 0.72	3.14 0.58	3.10 0.61	100.0 (520)
$x^2(df)$	5.7***	2.5*	2.5*	0.9	

*** $p < .001$
주: 본 응답은 교사, 원장의 2022년 설문 결과임. 2021년에는 방향성 없이 변화만 질문하여 비교가 의미 없음.

2) 교원의 성과

개정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원장의 달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유아와의 민주적 관계 3.48점, 기관장으로서의 유아 지원 3.36점, 부모와의 민주적, 협력적 관계 3.35점,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철학 3.34점, 전문성 제고 노력 3.24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시간 비율 증가 3.18점 순으로 나타났다. 점수의 순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대체로 유사하였으며, 모든 항목에 있어 유치원 원장의 점수가 어린이집 원장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3-20〉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원장의 달성 정도: 원장

단위: 점(명)

구분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철학		기관장으로서의 유아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시간 비율 증가		교사와의 민주적 관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4	0.57	3.36	0.56	3.18	0.61	3.41	0.55
유치원	3.43	0.57	3.46	0.55	3.27	0.63	3.49	0.55
어린이집	3.24	0.55	3.26	0.56	3.10	0.58	3.33	0.54
t	5.6***		6.0***		4.6***		4.8***	
구분	유아와의 민주적 관계		부모와의 민주적, 협력적 관계		전문성 제고 노력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8	0.53	3.35	0.54	3.24	0.58	(1,060)	
유치원	3.55	0.52	3.41	0.54	3.29	0.60	(534)	
어린이집	3.40	0.53	3.28	0.53	3.18	0.56	(526)	
t	4.7***		4.0***		3.0**			

주: 본 응답은 원장의 2022년 설문 결과임. 2021년에는 방향성 없이 변화만 질문하여 비교가 의미 없음.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교사의 달성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유아와의 민주적 관계가 3.3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료와의 민주적, 협력적 관계 3.33점, 교사로서의 유아 지원 3.25점, 부모와의 민주적, 협력적 관계 3.24점 순이었으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시간 비율 증가가 2.98점으로 가장 낮았다. 원장과의 민주적 관계는 차이가 없었으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시간 비율 증가는 어린이집이 높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유치원 교사의 점수가 더 높았다.

〈표 3-21〉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교사의 달성 정도: 교사

단위: 점(명)

구분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철학		교사로서의 유아 지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시간 비율 증가		원장과의 민주적 관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19	0.53	3.25	0.54	2.98	0.66	3.17	0.60	(1,068)
유치원	3.22	0.56	3.29	0.58	2.91	0.72	3.18	0.62	(548)
어린이집	3.16	0.49	3.19	0.49	3.07	0.59	3.16	0.58	(520)
t	2.0*		3.0**		−4.1***		0.6		

구분	동료와의 민주적, 협력적 관계		유아와의 민주적 관계		부모와의 민주적, 협력적 관계		전문성 제고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3	0.55	3.35	0.51	3.24	0.55	3.14	0.55	(1,068)
유치원	3.39	0.57	3.43	0.52	3.29	0.58	3.18	0.56	(548)
어린이집	3.27	0.53	3.27	0.48	3.19	0.50	3.10	0.53	(520)
t	3.5***		5.1***		2.9**		2.4*		

주: 본 응답은 교사의 2022년 설문 결과임. 2021년에는 방향성 없이 변화만 질문하여 비교가 의미 없음.

개정 누리과정 실행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시간 변화를 조사한 결과, 놀이지원을 위한 준비 시간의 경우 79.6%가 늘어났다고 응답하였으며 변화가 없다는 비율은 15.9%이었다. 활동 준비시간의 경우 전체의 47.5%가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였고, 28.4%는 줄어든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변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9.0%이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많이 늘어났다는 비율이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계획 및 평가 문서 작성 시간은 57.7%가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였고, 27.5%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모와 소통하는 시간은 64.7%가 늘어난 것으로, 32.5%가 변화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간의 경우 67.9%가 늘어난 것으로, 27.4%가 변화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유치원 교사의 경우 많이 늘어났다는 비율이 어린이집에 비해 더욱 높았다. 잡무 처리 시간은 66.9%가 늘어난 것으로, 29.21%가 변화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3-22〉 개정 누리과정 실행으로 인한 업무시간의 변화: 교사

단위: %(명)

구분		많이 줄어듦	다소 줄어듦	변화 없음	다소 늘어남	많이 늘어남	계(수)
놀이지원을 위한 준비 시간	(2020년 조사)	0.9	5.4	19.8	54.8	19.1	100.0 (1,000)
	(2021년 조사)	0.6	2.9	13.2	57.1	26.2	100.0 (500)
	전체	0.6	3.9	15.9	57.8	21.8	100.0 (1,068)
	유치원	0.4	4.0	19.0	52.9	23.7	100.0 (548)
	어린이집	0.8	3.8	12.7	62.9	19.8	100.0 (520)
	$x^2(df)$	N/A					

구분		많이 줄어듦	다소 줄어듦	변화 없음	다소 늘어남	많이 늘어남	계(수)
활동 (이야기나누기 등) 준비 시간	(2020년 조사)	5.9	22.5	36.3	29.1	6.1	100.0 (1,000)
	(2021년 조사)	3.7	22.2	29.0	33.9	11.2	100.0 (500)
	전체	2.9	17.0	32.6	39.0	8.5	100.0 (1,068)
	유치원	2.9	18.1	34.1	34.7	10.2	100.0 (548)
	어린이집	2.9	16.0	31.0	43.5	6.7	100.0 (520)
	$x^2(df)$	10.616(4)*					
계획 및 평가 문서 작성 시간	(2020년 조사)	3.6	19.0	25.9	37.8	13.7	100.0 (1,000)
	(2021년 조사)	1.6	12.6	21.7	42.3	21.8	100.0 (500)
	전체	1.7	13.0	27.5	42.0	15.7	100.0 (1,068)
	유치원	2.0	15.0	27.4	38.7	17.0	100.0 (548)
	어린이집	1.3	11.0	27.7	45.6	14.4	100.0 (520)
	$x^2(df)$	8.100(4)					
부모와 소통하는 시간	(2020년 조사)	-	2.1	53.3	35.6	9.0	100.0 (1,000)
	(2021년 조사)	0.7	2.2	43.1	41.7	12.3	100.0 (500)
	전체	0.4	2.4	32.5	50.2	14.5	100.0 (1,068)
	유치원	0.4	2.0	30.5	49.8	17.3	100.0 (548)
	어린이집	0.4	2.9	34.6	50.6	11.5	100.0 (520)
	$x^2(df)$	N/A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간	(2020년 조사)	0.2	2.8	32.0	49.6	15.4	100.0 (1,000)
	(2021년 조사)	0.7	1.7	21.2	57.6	18.8	100.0 (500)
	전체	1.0	3.7	27.4	53.6	14.3	
	유치원	1.1	4.7	26.6	50.5	17.0	100.0 (548)
	어린이집	1.0	2.5	28.3	56.7	11.5	100.0 (520)
	$x^2(df)$	11.385(4)*					
잡무 처리 시간	(2020년 조사)	1.3	6.2	38.2	37.1	17.1	100.0 (1,000)
	(2021년 조사)	0.8	4.7	30.9	42.3	21.3	100.0 (500)
	전체	0.7	3.3	29.2	44.6	22.3	100.0 (1,068)
	유치원	0.7	3.3	28.1	40.3	27.6	100.0 (548)
	어린이집	0.6	3.3	30.4	49.0	16.7	100.0 (520)
	$x^2(df)$	N/A					

* $p < .05$, *** $p < .001$
주: 본 응답은 교사의 2022년 설문 결과임.

3) 부모의 성과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실행을 통한 부모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원장과 교사 모두 '기관에 대한 신뢰'가 각각 3.38점, 3.23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유치원 원장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원장/교사와의 민주적, 협력적 관계' 또한 3.26점과 3.10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유치원 원장의 점수는 어린이집 원장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모들 간의 소통'은 원장 3.17점, 교사 3.07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교사에 비해 어린이집 교사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장과 교사 모두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놀이 중심 교육철학'으로 원장 3.04점, 교사 2.82점이었으며, 특히 어린이집 교사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부모의 변화: 원장과 교사

단위: 점

구분		원장		교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놀이 중심 교육철학	전체	3.04	0.60	2.82	0.59
	유치원	3.11	0.61	2.83	0.60
	어린이집	2.96	0.58	2.81	0.58
	t	4.0***		0.6	
부모로서의 유아지원 역할	전체	3.06	0.61	2.87	0.59
	유치원	3.14	0.62	2.87	0.59
	어린이집	2.98	0.58	2.86	0.59
	t	4.1***		0.2	
원장/교사와의 민주적, 협력적 관계	전체	3.26	0.54	3.10	0.54
	유치원	3.31	0.56	3.08	0.55
	어린이집	3.21	0.52	3.11	0.53
	t	3.1**		−0.9	
부모들 간의 소통	전체	3.17	0.61	3.07	0.57
	유치원	3.18	0.62	3.03	0.60
	어린이집	3.16	0.59	3.11	0.53
	t	0.6		−2.2*	
놀이에 대한 이해	전체	3.05	0.62	2.94	0.59
	유치원	3.13	0.62	2.93	0.61
	어린이집	2.97	0.60	2.94	0.56
	t	4.2***		−0.2	

구분		원장		교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관운영 및 행사참여 적극성	전체	3.16	0.65	3.02	0.61
	유치원	3.19	0.67	3.02	0.62
	어린이집	3.13	0.62	3.02	0.60
	t	1.7		0.1	
기관에 대한 신뢰	전체	3.38	0.54	3.23	0.54
	유치원	3.43	0.55	3.22	0.58
	어린이집	3.33	0.52	3.24	0.50
	t	3.0**		−0.6	

주: 1) 원장: 전체 n=1,060, 유치원 n=534, 어린이집 n=526
교사: 전체 n=1068, 유치원 n=548, 어린이집 n=520
2) 2021년도 조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변화 정도를 물어봄. 원장은 '기관에 대한 신뢰 제고' 2.90점, '놀이에 대한 이해 제고' 2.80점, '원장 및 교사와의 관계' 2.76점, '기관운영 및 행사참여 제고' 2.71점, '교육철학' 2.69점, '부모로서의 역할' 2.64점, '부모들 간의 관계' 2.61점이었음. 교사는 '기관에 대한 신뢰 제고' 2.67점, '놀이에 대한 이해 제고' 2.61점, '기관운영 및 행사참여 제고' 2.52점, '원장 및 교사와의 관계' 2.51점, '교육철학' 2.47점, '부모로서의 역할' 및 '부모들 간의 관계' 각 2.43점이었음.
3) 본 응답은 교사, 원장의 2022년 설문 결과임.

4) 유아의 성과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유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원장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3.36점, 감성 증대 3.35점, 주도성과 창의성 증대가 각각 3.33점, 배려심 증대 3.30점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는 원장의 응답과는 달리 주도성 증대가 3.2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창의성 증대 3.26점, 감성 증대 3.24점,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3.23점, 배려심 증대 3.13점 순이었다. 원장과 교사 각각의 평가에서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 원장과 교사가 유아의 변화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유아의 변화: 원장과 교사

단위: 점

구분		원장		교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전체	3.36	0.55	3.23	0.54
	유치원	3.43	0.57	3.28	0.55
	어린이집	3.30	0.53	3.18	0.52
	t	3.8***		2.9**	

구분		원장		교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도성 증대	전체	3.33	0.54	3.27	0.54
	유치원	3.42	0.54	3.32	0.56
	어린이집	3.24	0.52	3.22	0.51
	t	5.7***		3.1**	
창의성 증대	전체	3.33	0.56	3.26	0.55
	유치원	3.42	0.56	3.31	0.57
	어린이집	3.25	0.53	3.21	0.53
	t	5.0***		2.9**	
감성 증대	전체	3.35	0.54	3.24	0.53
	유치원	3.43	0.56	3.27	0.55
	어린이집	3.26	0.51	3.20	0.50
	t	5.0***		2.0*	
배려심 증대	전체	3.30	0.56	3.13	0.58
	유치원	3.37	0.58	3.18	0.60
	어린이집	3.23	0.53	3.08	0.56
	t	4.1***		2.7**	

주: 1) 원장: 전체 n=1,060, 유치원 n=534, 어린이집 n=526
교사: 전체 n=1068, 유치원 n=548, 어린이집 n=520
2) 2020년, 2021년 조사에서는 유아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선택하도록 하였음. 원장과 교사 모두 '주도성 증대'가 약 52%로 가장 높았으며, '창의성 증대'는 원장 27.9%, 교사 36.9%이었음.
3) 본 응답은 교사, 원장의 2022년 설문 결과임.

바. 개정 누리과정 운영 및 지원 요구

1)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및 요구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장과 교사 모두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다는 점을 1순위로 선택하였으며(원장 32.1%, 교사 40.8%). 이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놀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원장의 19.9%, 교사의 10.3%가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2021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이밖에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기관 고유프로그램과의 조화, 물리적 환경의 열악함, 계획안과 평가 등 문서 작성 및 관리 등에 대해서도 10% 미만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상승한 부분은 '부가적인 업무 부담 및 시간 부족'이었다.

〈표 3-25〉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원장과 교사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계(수)
원장														
(2020년 조사)	7.4	26.8	6.5	7.6	28.3	4.7	4.8	4.4	0.6	0.9	7.9	-	0.1	100.0 (1,000)
(2021년 조사)	5.0	19.8	6.1	9.4	32.7	5.3	2.8	6.4	1.1	2.5	8.3	-	0.6	100.0 (1,000)
전체	5.6	19.9	6.1	9.2	32.1	4.2	1.6	8.9	0.9	2.4	8.4	0.2	0.7	100.0 (1,060)
유치원	7.7	15.5	8.2	9.4	30.0	4.7	1.3	9.9	0.7	2.4	9.6	0.2	0.4	100.0 (534)
어린이집	3.4	24.3	4.0	8.9	34.2	3.6	1.9	7.8	1.1	2.3	7.2	0.2	1.0	100.0 (526)
$\chi^2(df)$	N/A													
교사														
(2020년 조사)	6.8	15.4	6.8	7.1	36.5	8.1	6.7	5.6	0.3	2.4	3.9	-	0.4	100.0 (1,000)
(2021년 조사)	4.7	16.4	6.2	8.3	41.4	6.9	4.2	5.2	0.5	1.9	3.7	0.2	0.4	100.0 (1,000)
전체	2.3	10.3	8.0	7.5	40.8	7.0	4.1	9.1	1.7	2.2	5.7	0.7	0.6	100.0 (1,068)
유치원	2.2	10.4	7.5	7.1	43.8	4.4	3.3	11.5	0.5	2.4	6.0	0.5	0.4	100.0 (548)
어린이집	2.5	10.2	8.5	7.9	37.7	9.8	5.0	6.5	2.9	2.1	5.4	0.8	0.8	100.0 (520)
$\chi^2(df)$	N/A													

주 1) ①「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② 놀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③ 기관 고유 프로그램과의 조화 ④ 물리적 환경이 열악함 ⑤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 ⑥ 계획안과 평가 등 문서 작성 및 관리 ⑦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 부족 ⑧ 부가적인 업무 부담 및 시간 부족 ⑨ 기관평가 대비 ⑩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⑪ 부모의 이해 부족(학습에 대한 요구 등) ⑫ 미디어 사용 역량 부족 ⑬기타

2) 본 응답은 교사, 원장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자료: 1)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 p. 223. 〈표 Ⅴ-5-1〉에서 2020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2)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1).「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 194. 〈표 Ⅳ-5-1〉에서 2021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 1순위를 조사한 결과,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 원장 39.6%, 교사 5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원장의 경우 '실내외 환경 개선', '교사 교육 강화', '보조인력 지원', '개정 누리과정 홍보 강화' 등이 10% 이상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경우는 '보조인력 지원'만이 1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2021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 2021년과 비교해 2022년에 좀 더 증가한 요구의 추세를 살펴보면, 2020년에 교사와 원장 모두 교사교육 강화를 요구했다면 이는 줄어든 반면, 원장들은 이전에 비해 「2019 개정 누리과정」 홍보 강화가 소폭 증가하였고, 교사들의 경우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와 문서 등 행정관리 간소화가 소폭 상승함을 볼 수 있다. 보조인력지원에 대한 요구는 유치원 교사들이 더 많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표 3-26〉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1순위): 원장과 교사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수)
원장													
(2020년 조사)	27.0	-	11.5	2.9	12.0	33.1	4.1	5.3	2.5	1.5	-	0.2	100.0 (1,000)
(2021년 조사)	14.5	2.1	12.1	8.8	4.9	40.4	5.7	6.6	0.8	1.7	2.1	0.3	100.0 (1,000)
전체	10.8	2.0	12.5	10.1	3.9	39.6	10.7	5.5	0.9	0.8	2.9	0.4	100.0 (1,060)
유치원	10.7	2.8	13.5	10.5	4.1	34.1	13.5	6.4	0.2	1.5	2.4	0.4	100.0 (534)
어린이집	10.8	1.1	11.4	9.7	3.6	45.2	7.8	4.6	1.7	0.2	3.4	0.4	100.0 (526)
$x^2(df)$	N/A												
교사													
(2020년 조사)	11.4	-	9.7	3.6	11.4	47.5	5.8	7.5	1.2	1.6	-	0.4	100.0 (1,000)
(2021년 조사)	5.3	2.4	10.1	4.9	6.3	54.9	5.7	7.8	0.7	0.9	0.9	0.1	100.0 (1,000)
전체	5.3	1.3	8.1	4.8	5.2	53.0	10.1	8.7	0.9	0.6	1.7	0.2	100.0 (1,068)
유치원	5.3	1.3	7.7	4.9	5.8	53.6	11.1	8.0	0.4	0.4	1.3	0.2	100.0 (548)
어린이집	5.4	1.3	8.7	4.6	4.6	52.3	9.0	9.4	1.5	0.8	2.1	0.2	100.0 (520)
$x^2(df)$	N/A												

주: 1) ① 교사 교육 강화 ② 원장 리더십 연수 제공 ③ 실내외 환경 개선 지원 ④「2019 개정 누리과정」 홍보 강화 ⑤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⑥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⑦ 보조인력 지원 ⑧ 문서 등 행정관리 간소화 ⑨ 기관 평가 지표 및 방법 개선 ⑩ 누리과정포털(i-누리) 활성화 ⑪ 교사 전문성 제고 활동을 위한 비용지원 ⑫ 기타
2) 본 응답은 교사, 원장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자료: 1)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 p. 231. 〈표 Ⅴ-5-7〉에서 2020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2)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1).「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 198. 〈표 Ⅳ-5-5〉에서 2021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개정 누리과정을 재개정 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원장의 44.7%와 교사의 45.3%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 재강조'를 우선 고려사항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현재 개정되고 있는 초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 대해 원장의 21.9%, 교사의 20.7%가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미래 사회 역량의 기초 형성'(원장 13.3%, 교사 10.9%)과 '유아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성취기준 제시'(원장 11.4%, 교사 12.6%)가 뒤를 이었다. '장애 유아, 다문화 가정의 유아 등 취약계층 유아에 대한 고려'는 주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표 3-27〉 개정 누리과정 재개정 시 우선적 고려 사항: 원장과 교사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수)	
원장								
전체	44.7	21.9	13.3	7.7	11.4	0.9	100.0	(1,060)
유치원	43.4	21.9	17.0	3.7	12.7	1.1	100.0	(534)
어린이집	46.0	21.9	9.5	11.8	10.1	0.8	100.0	(526)
$x^2(df)$	N/A							
교사								
전체	45.3	20.7	10.9	10.2	12.6	0.3	100.0	(1,068)
유치원	44.7	20.4	13.0	5.3	16.2	0.4	100.0	(548)
어린이집	46.0	21.0	8.7	15.4	8.8	0.2	100.0	(520)
$x^2(df)$	N/A							

주: 1) ①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재강조 ② 현재 개정되고 있는 초중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 ③ 미래사회 역량의 기초 형성 ④ 장애 유아, 다문화 가정의 유아 등 취약계층 유아에 대한 고려 ⑤ 유아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성취기준 제시 ⑥ 기타
2) 본 응답은 교사, 원장의 2022년 설문 결과임.

다음은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원장과 교사 모두 '유아 대 교사 비율 조정 등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과정'에 대한 고려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부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비율 격차가 다소 나타났는데, 특히 어린이집 원장의 응답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의 형평성 제고'가 35.7%로 두 번째로 높은 데 비해 유치원의 경우는 3.7%로 매우 적은 비율이었다. '교사 처우 등 복지 증진'에 대해 유치원 원장은 23.0%가 응답한 데 비해 어린이집의 경우 11.6%에 그친 반면,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 모두 '교사 처우 등 복지 증진'이 각각 29.6%, 37.7%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모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은 유치원 원장의 응답에서 10.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28〉 개정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고려 사항: 원장과 교사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원장								
전체	2.5	19.6	42.5	10.6	17.4	6.7	0.8	100.0 (1,060)
유치원	4.3	3.7	46.1	10.7	23.0	10.9	1.3	100.0 (534)
어린이집	0.6	35.7	38.8	10.5	11.6	2.5	0.4	100.0 (526)
$x^2(df)$	N/A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교사								
전체	2.4	6.3	48.8	4.0	33.5	4.4	0.6	100.0 (1,068)
유치원	3.6	2.0	52.9	5.3	29.6	5.7	0.9	100.0 (548)
어린이집	1.2	10.8	44.4	2.7	37.7	3.1	0.2	100.0 (520)
$x^2(df)$	N/A							

주: 1) ① 원격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 ②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의 형평성 제고 ③유아 대 교사 비율 조정 등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과정 ④ 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 통합을 통한 질 높은 교사 양성 ⑤ 교사 처우 등 복지 증진 ⑥ 부모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 ⑦ 기타
2) 본 응답은 교사, 원장의 2022년 설문 결과임.

2)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요구: 부모

초등학교 1학년 부모들이 자녀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기대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38.9%로 가장 많았고,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교육 20.1%, 충분한 놀이 15.9%, 창의성,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역량 제고 교육 10.2%, 예체능 교육 7.2%, 현장체험 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직전 경험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며, 고졸 이하 부모의 경우 기본생활습관 교육과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교육을 기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냈던 부모는 유치원에 보낸 부모에 비해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대한 기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기대했던 점: 부모

단위: %(명)

구분	충분한 놀이	기초학습 능력을 위한 교육	예체능 교육	기본 생활 습관 교육	현장 체험	창의성,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역량 제고교육	기타	계(수)
전체	15.9	20.1	7.2	38.9	7.0	10.2	0.7	100.0 (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9.1	28.6	2.6	50.6	2.6	6.5	0.0	100.0 (77)
전문대졸	19.5	17.6	5.7	35.2	11.9	10.1	0.0	100.0 (159)
4년제대학졸	15.7	19.8	8.4	39.8	5.7	9.7	0.8	100.0 (616)
대학원졸 이상	16.2	19.6	6.1	33.1	9.5	14.2	1.4	100.0 (148)
$x^2(df)$	32.53(18)*							

구분	충분한 놀이	기초학습 능력을 위한 교육	예체능 교육	기본 생활 습관 교육	현장 체험	창의성,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역량 제고교육	기타	계(수)
초등 직전 경험기관								
유치원	16.5	21.5	6.1	36.7	7.3	10.9	1.0	100.0 (689)
어린이집	14.5	17.0	9.6	43.7	6.4	8.7	0.0	100.0 (311)
$x^2(df)$	13.53(6)*							

* $p < .05$, ** $p < .01$, *** $p < .001$.
주: 본 응답은 부모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현장 체험 29.3%, 창의성,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역량 제고 교육 23.3%, 기초학습 능력을 위한 교육 18.3% 등의 순이었으며, 충분한 놀이는 6.1%로 가장 비율이 낮았다.

〈표 3-30〉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부모

단위: %(명)

구분	충분한 놀이	기초학습 능력을 위한 교육	예체능 교육	기본 생활 습관 교육	현장 체험	창의성,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역량 제고교육	기타	계(수)
전체	6.1	18.3	10.6	11.0	29.3	23.3	1.4	100.0 (1,000)
유치원 유형								
공립단설	3.8	30.0	11.3	13.8	23.8	17.5	0.0	100.0 (80)
공립병설	7.2	23.8	9.0	9.4	26.0	22.9	1.8	100.0 (223)
사립법인	8.0	11.8	11.2	15.5	26.7	25.1	1.6	100.0 (187)
사립개인	5.0	15.1	10.1	7.5	37.7	23.6	1.0	100.0 (199)
$x^2(df)$	34.47(18)*							

* $p < .05$, ** $p < .01$, *** $p < .001$.
주: 본 응답은 부모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으로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내외 환경 개선' 26.3%, '누리과정 비용 지원 확대' 12.7%, '개정 누리과정홍보 확대'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나 자녀의 특성에 관계없이 유사하였다.

〈표 3-31〉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부모

단위: %(명)

구분	교사 교육 강화	실내외 환경개선 지원	교사 대 유아 비율조정	「2019 개정 누리과정」 홍보 확대	누리과정 비용 지원확대	기타	계(수)
(2021년 조사)	9.4	30.4	37.9	8.7	13.2	0.4	
전체	9.5	26.3	40.6	10.2	12.7	0.7	100.0(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8	25.0	40.1	11.1	12.4	0.5	100.0(619)
홑벌이	7.3	28.3	41.5	8.7	13.1	1.0	100.0(381)
$\chi^2(df)$			6.68(5)				
최종학력							
고졸 이하	9.1	18.2	44.2	13.0	14.3	1.3	100.0(77)
전문대졸	6.3	23.9	47.2	8.8	13.2	0.6	100.0(159)
4년제대학졸	9.4	29.5	38.5	9.4	12.5	0.6	100.0(616)
대학원졸 이상	13.5	19.6	40.5	13.5	12.2	0.7	100.0(148)
$\chi^2(df)$			17.67(15)				
소득							
400만원 이하	4.8	28.6	43.7	10.0	12.6	0.4	100.0(231)
401~550만원 이하	7.2	27.0	41.3	9.6	14.0	1.0	100.0(293)
551~700만원 이하	14.5	23.2	38.6	9.5	13.3	0.8	100.0(241)
700만원 초과	11.9	26.4	38.7	11.9	10.6	0.4	100.0(235)
$\chi^2(df)$			20.51(15)				
초등 직전 경험기관							
유치원	10.9	27.1	38.6	9.3	13.5	0.6	100.0(689)
어린이집	6.4	24.4	45.0	12.2	10.9	1.0	100.0(311)
$\chi^2(df)$			10.60(5)				
유치원 유형							
공립단설	10.0	28.8	40.0	5.0	16.3	0.0	100.0(80)
공립병설	15.2	31.4	30.9	9.9	11.2	1.3	100.0(223)
사립법인	7.5	26.7	42.2	11.2	11.8	0.5	100.0(187)
사립개인	9.5	22.1	43.2	8.5	16.6	0.0	100.0(199)
$\chi^2(df)$			24.41(15)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7.6	19.5	42.4	16.9	12.7	0.8	100.0(118)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	8.1	29.7	35.1	10.8	16.2	0.0	100.0(37)
민간	4.2	27.3	51.0	7.7	9.1	0.7	100.0(143)
직장	15.4	23.1	30.8	23.1	0.0	7.7	100.0(13)
$\chi^2(df)$			23.57(15)				
지역 규모							
대도시	11.8	27.0	39.3	9.7	11.8	0.5	100.0(382)
중소도시	8.4	24.1	42.9	10.0	13.9	0.7	100.0(452)
읍/면	7.2	30.7	37.3	12.0	11.4	1.2	100.0(166)
$\chi^2(df)$			9.35(10)				

* $p < .05$, ** $p < .01$, *** $p < .001$.

주: 본 응답은 부모의 2022년 설문 결과임.

자료: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 198-199. 〈표 Ⅳ-5-6〉에서 2021년 조사결과 일부 발췌함.

4 개정 누리과정 운영 사례[4)]

유치원 4개원과 어린이집 4개소의 개정 누리과정 실천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에 대해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교사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치원의 경우 원장(감)과 교사 모두에게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철학과 유아와 교사의 자율성 보장을 언급한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사 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편차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처럼 개정 누리과정의 기본 철학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관 특성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원장(감)과 교사들은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 모두 공통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관리자 전문성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 전문성의 경우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원장(감)은 대학원 진학 독려, 연수 기회 활동 등 다각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교사들의 현실적인 욕구가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고 있어 기관과 교사가 체감하고 있는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영실제의 다양한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적으로 문서의 형식과 내용이 간소화·자율화되었으며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운영에 있어서는 놀이의 비중이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유아 자율성의 극대화가 주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스러움을

4) 유치원 4개원과 어린이집 4개소(원장(감) 총 8명, 교사 총 22명)를 대상으로 2회 조사함.

지적하기도 하였다. 학급환경의 구성은 유아의 흥미를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놀이자료의 제공과 활용도 비구조적 자료와 유아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관찰 및 기록은 점차 유아의 놀이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 운영실제의 변화는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개정 누리과정이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안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개정 누리과정 시행 이후 취약계층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과 놀이지원에도 변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개별적 지도가 필요한 장애유아에게 놀이중심으로 운영되는 개정 누리과정을 통한 개별 관찰과 접근이 효과적이었으며 또래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2학기에 이루어진 2차 면담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들의 놀이가 발달하고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장애유아가 놀이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유아와의 관계가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해나가는' 민주적 관계로 변화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동료 교원과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화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놀이중심의 관찰기록을 통해 부모와의 소통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학부모들이 놀이중심 교육의 가치에 대해 완전한 신뢰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 설명회, 놀이사례집 발간, 스마트알림장 사용 등 기관 차원과 교사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기관과 교사 차원의 학부모 인식개선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으로 국가차원에서 부모교육의 시행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한 정책지원 및 요구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것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의 조정이었다. 원장(감)과 교사들은 현재의 교사 대 유아 비율로는 개정 누리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실제적 사례 중심의 연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보육시간 축소와 연장보육지원 확대를 주장하여 교육과정 연구를 위한 시간 확보가 시급함을 지적하였으며, 이는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과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과 교사들은 공통으로 유아와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개정 누리과정의 한계로는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교육 목표와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교사 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편차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향후 이러한 한계점들이 보완되어 교육과정이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5 정책 제언

가. 정책 방향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은 2021년 2차년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2020년 1차년도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설정한 5가지를(김은영 외, 2020: 241) 그대로 차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질을 보장하되 현장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둘째,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발성을 유도한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에서 유아의 참여를 확대하고, 놀이에서 유아의 주도성을 신장한다.

넷째,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이해 제고를 통해 기관과 가정이 연계하고 협동한다.

다섯째,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상황과 미래사회 변화 속에서도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지원 방안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1차년도 연구인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에서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누리과정 실행의 주체인 교사와 이를 지원하는 원장(감)의 전문성 제고와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 측면, 행정 측면, 재정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법과 제도 측면에서는 관련법을 살펴보고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행정 측면에서는 시도교육청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재정 측면에서는 각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대략의 비용을 추계하였다(김은영 외, 2020: 242).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2차년도 연구인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결과는 1차년도 결과와 유사하게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교사와 원장(감)의 전문성 제고가 가장 중요하며,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여건 개선 및 부모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외, 2001: 307).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정부와 전달체계 차원에서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기관과 교사의 배경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자 하였다(김은영 외, 2021: 308).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 이후 정부와 시도 전달체계에서는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지난 2년 간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기초로 제안한 정책 제언을 살펴보면, 부분적인 노력은 있었으나 현재까지 별로 실현된 것이 없다. 지난 3년간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와 어려움을 중심으로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방안을 중요도와 현실성 및 유보통합 추진 등 최근 정책동향을 고려하여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정책 방안 및 과제

구분	정책 방안	세부 과제
단기 방안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교사의 자율적 노력 연계 지원: 연수은행제 - 맞춤형 컨설팅 지원: i-play 컨설팅 매뉴얼 활용
	전달체계 간 협력 체계 구축	-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가 풀 공동 구성 및 운영 - 교육과정 지원 자료 공동 개발 및 공유 - 타기관 참관을 통한 현장우수사례 공유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교육과정 운영의 협력자로서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 부모의 교육과정 참여 확대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 지역 및 기관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중장기 방안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최적화된 물리적 환경 기준 마련 -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 보조인력 배치나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제 개편	- 연수기관 평가 시행 - 교사 양성교육과정 개정
	학교로서의 위상 정립 및 학제 편입	- 학교로서의 위상 정립 - 의무학제 편입

1) 단기 방안

가)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3년간의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개정 누리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원의 전문성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 이후 정부와 시도 전달체계에서는 교원 대상 연수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차츰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요구로 2020년부터 꾸준히 제기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두 번째는 교사의 놀이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었으며, 2020년, 2021년 조사 결과에 비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원장(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시도 전달체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1)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 이후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활동이다. 지난 3년 간 학습공동체는 정부 혹은 시도 전달체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사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교육부에서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누리과정 포털을 활용하여 전문가가 지원하는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의문과 고민은 깊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 교사들로 이루어진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공감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나가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기관 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 원장의 65.6%와 교사의 56.1%가 학습공동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교사의 20% 정도가 동아리나 소모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시도 전달체계는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와 컨설팅 이외에 교사의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학습공동체 활동을 위해 기관에서는 시간을 확보해 주고, 시도 전달체계에서는 전문가나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학습공동체는 한 기관에서, 가까운 지역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리에 상관없이 운영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습공동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전달체계에서 유연하게 지원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해 연수점수로 인정해 주는 등 유인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교사의 자율적 노력 연계 지원: 연수은행제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획일적인 것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인 개정 누리과정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 또한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연수 점수 혹은 보수교육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모니터링 2차년도 연구에서 교사의 자율연수 기반 마련을 위한 연수은행제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를 추진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전이라도 교사의 자율적 노력을 연수나 보수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누리과정 포털에서 교사들이 수강하는 자율연수를 각 전달체계에서 확인하여 교사들의 직무연수나 보수교육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연수은행제를 통해 교사들의 자율 연수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각 교사에게 필요한 맞춤형 연수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3) 맞춤형 컨설팅 지원: i-play 컨설팅 매뉴얼 활용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기관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집단 연수도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이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해진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원장의 31.2%와 교사의 35.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2020년에 비해서는 증가된 수치이다. 또한 장학이나 컨설팅을 경험한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원장의 92.5%, 교사의 90.4%가 만족한다는 응답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는 2020년에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i-play 컨설팅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 개발된 자료를 활용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현장의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고 그에 따라 지원이 시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한다.

나) 전달체계 간 협력 체계 구축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은 교육부와 17개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인 누리과정 포털에 기반한 지원 이외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기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중적인 예산과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이원화된 체계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3~5세 유아들에게 공히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유보

통합을 위한 첫 번째 단추로서의 기능도 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유보통합이 결실을 맺지 못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보통합 대신 격차 완화 정책으로 추진하였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달체계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유보통합을 위한 준비로서도 유보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개정 누리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도 매우 적절한 정책 방안이다.

(1)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가 풀 공동 구성 및 운영

각 지역별 전문가는 한정되어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가 풀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운영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대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가 풀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각 지역의 집단 연수뿐 아니라 원격연수, 맞춤형 컨설팅, 학습공동체 지원 등 다각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지원 자료 공동 개발 및 공유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정 지원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누리과정 포털을 통해 공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들이 지역적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달체계에서 함께 협력하여 교육과정 지원 자료를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써 각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자료를 활용한 현장 실천사례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면서 교사들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3) 타기관 참관을 통한 현장우수사례 공유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교사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타 기관 참관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장의 우수사례 공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해 현장의 우수사례를 직접 참관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전문성 제고방법은 없을 것이다. 같은 지역

내에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살펴봄으로써 교사들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면서도 각 지역 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에 혜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 부모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나 이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전달체계 조사나 사례조사에서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부모들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동의하고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면서도 초등학교 적응을 걱정하면서 학습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협력자로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소통하며 부모의 교육과정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1) 교육과정 운영의 협력자로서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2019 개정 누리과정」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부모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유아에 대한 이해, 유아 권리에 대한 이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운영의 협력자로서 가정에서의 연계 지원 등에 대한 연수를 통해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관과 소통하며 가정에서도 유아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제고될 것이다.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는 정부 차원에서, 시도 전달체계 차원에서, 개별 기관 차원에서, 혹은 개별 학급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2022년에 교육부는 누리과정 포털 사업의 일환으로 부모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 전달체계 차원에서도 시도교육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부모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이나 학급 차원에서도 교육과정 운영의 협력자로서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나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부모의 교육과정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교육과정에의 참여는 부모로 하여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정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유아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만남 뿐 아니라 가정통신문을 비롯하여 홈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부모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의 이러한 소통과 연계 및 교육과정에의 참여는 결과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질을 제고하고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본 연구의 전달체계 조사 결과, 유치원을 관장하는 시도교육청이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정 누리과정 안착 지원을 위한 사업 유무와 규모 및 예산에 차이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각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받는 지원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기관이나 설립유형에 따라 격차가 있었으며, 개정 누리과정 실천 정도에 있어서도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아들이 소속된 기관에 따라 유아들이 받는 교육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 결과, 유치원 원장들은 교사 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편차와 책무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교사들 또한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 이유로 교사 역량에 따른 편차가 크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국가나 지역교육청에서 놀이지원 플랫폼, 연수 및 협의의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이야기한 반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지원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시도 전달체계에서는 지역과 기관 상황에 따라 열악한 지역과 기관을 우선적으로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유아가 경험하는 교육과정이 지역이나 기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질적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향후 유보통합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1) 지역 및 기관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지역이나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실제는 예산이 넉넉한 지역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이러한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나 기관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열악한 지역이나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적용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함께 지역 간, 기관 간 격차를 메꿀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개선과 인적 환경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2)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

본 연구의 사례조사 결과,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은 그 자체로 장애유아나 다문화 가정의 유아 등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유아들이 적응하기에 더 용이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유아들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공통적인 교육과정 운영 중에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유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 제고와 함께 자료 개발 및 연수, 보조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2) 중장기 방안

가)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기반 마련

지난 3년간의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개정 누리과정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 등 현장의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수적임에도 정부나 지역 전달체계에서 소극적인 지원에 그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1) 최적화된 물리적 환경 기준 마련

본 연구의 전달체계 조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유치원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2021년에는 특히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 지원에 초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대상이나 규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 기관에 따른 지원 차이가 발생하였다. 17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모두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시도청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도청에서 어린이집에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교육과정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게 지원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가 컸다.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물리적 환경 지원에 있어서 교육부 차원에서의 유치원 실내외 놀이시설에 대한 공간구성과 기능 마련을 위한 전문가 구성과 워크숍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래교육을 위한 그린스마트 사업 공간 구성 예산 지원, 디지털 환경 구성 지원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들은 타사업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환경 지원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정부 지원 및 지역 기관 협약을 통한 컨설팅, 유아·놀이중심을 위한 교실 환경 구성 등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센터별 물리적 환경개선지원체계 방법 및 사례공유 등을 제안하였다.

물리적 환경은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여부를 결정지을 뿐 아니라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김은영 외, 2009: 1). 이러한 측면에서 시도 전달체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는 유아들의 일상생활과 놀이를 위한 최적화된 물리적 환경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지원할 뿐 아니라 미래교육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2020년부터 꾸준히 제기하는 가장 큰 어려움과 지원 요구는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으니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 요구에서도 원장과 교사, 부모까지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 결과에서는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학급 내 협의와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한 학급에 두 명의 담임을 두는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은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인다. 현재 시도교육청이나 시도청 차원에서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있고, 한 시교육청에서는 단계적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실제 우리나라 전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 대 유아 비율 평균을 보면 OECD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교사 대 유아 비율의 평균은 대도시의 과밀학급과 읍면 지역의 극소수학급의 현황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조정된 비율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도시 과밀학급에는 교사 2인을 배치하거나 보조교사를 지원함으로서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읍면 지역의 극소수학급은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인력 배치나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 요구에서 교사들은 보조인력 지원과 행정관리 간소화를 요구하였다. 교사들의 이러한 요구는 교육과정을 수행하면서 혼자 많은 유아들을 데리고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거나 다른 업무들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담임교사 이외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혹은 행정을 지원하는 행정인력 등의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은 정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인력 배치나 지원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며, 특히 인력 배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자체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가장 시급한 인력을 먼저 파악하고 인력 배치나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와 함께 가장 열악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제 개편

교육과정 운영의 질은 교사에게 달려 있으며, 개정 누리과정은 현장 교사의 자율성을 추구하기에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교육과정 운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중장기적으로 연수기관 평가나 교사양성과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지원을 보다 공고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1) 연수기관 평가 시행

현재 유치원 교사를 위한 연수기관은 중앙교육연수원과 지역교육연수원 및 유아교육원 등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연수기관은 매우 다양하여 그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연수를 위한 기관에 대해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연수 프로그램이나 강사진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늘 부족한 시간을 내서 받는 연수의 질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이나 기관에 상관없이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2) 교사 양성교육과정 개정

개정 누리과정은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예비교사교육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개선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졸업하여 현장에 나왔을 때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교사 양성교육과정 내에서 부여된 자율성과 운영의 묘를 활용하여 개정 누리과정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보통합을 염두에 두고 유아교육기관의 예비교사들이 미래역량을 포함하여 개정 누리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 양성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 학교로서의 위상 정립 및 의무학제 편입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유아를 위한 학교로서 위상이 정립되고 유아학교 체제로 의무학제에 편입이 된다면 이상에서 제안한 많은 과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은 강화되고 유아를 위한 학교로서 당연히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도 강화될 것이며, 평가도 초등학교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초등학교 사업과 동등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 학교로서의 위상 정립

유치원은 법상 학교이나 학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다. 향후 유보통합이 된다면 통합된 유아교육기관은 유아학교로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유아학교에 대한 이슈는 20여년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으나 아직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최근 유보통합, 의무교육 등의 이슈와 연계되면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전달체계 조사에서도 유아학교나 의무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 유아교육기관이 학교로 정의되고 학교로서의 위상이 정립된다면 예산 확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무학제 편입

유아기가 의무학제에 편입이 된다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극대화될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과 행정은 따라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질이 제고될 것이며, 교육의 질적 격차도 차츰 완화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아기를 의무학제에 편입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 의무교육은 5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으며, 인구변화에 따라 3~5세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시행할 수도 있다. 유아기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유아기의 특성이 있으므로 부모의 선택권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과와 향후 개정 방향

국가의 정책방향과 교육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 및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개정한 유아중심, 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코로나19라는 커다란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차츰 안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부모의 참여와 유아의 역량 제고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반면 초등학교 적응에 대한 걱정이나 유아의 성취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누리과정 재개정 시에 참고할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과와 과제 및 향후 개정 방향

성과	과제	향후 개정 방향
• 유아의 미래역량 제고 • 교사의 자발적인 전문성 제고 노력 • 유치원과 어린이집 조직문화의 변화	• 부모의 유아 및 놀이에 대한 이해 제고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 •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여건 개선 • 교사 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차이 극복	• 유아의 미래에 필요한 역량 반영: 인성 강조, 디지털 역량 추가 • 특별한 요구를 지닌 유아에 대한 배려 보강 •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 강화 • 유아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제시 고려

02

2022년 제6차 KICCE 정책토론회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 3년, 성과와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

토론문

김영아 | 숭의여자대학교 교수

구자연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윤미경 | 푸른아이세상어린이집 원장

정미연 | 서울명일유치원 교사

신수현 | 배화여자대학교부속 배화유치원 학부모

김정희 |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정경진 |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01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

김 영 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

2019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연구가 2020년부터 3년간 진행되었다. 1차년도에는 교사와 원장(감)의 전문성 제고와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행정, 그리고 재정 측면에서의 정책방안이 제안되었고 2차년도 제안에는 교사와 원장(감)의 전문성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여건 개선 및 부모인식 변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지금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및 중장기 정책방안과 세부과제가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제안된 정책들은 모두 유아중심의 놀이 실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이 중 몇 가지를 교사, 유아, 부모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사의 전문성 측면

2020년 3월에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현장 교사들을 위하여 집합연수, 원격연수, 장학 및 컨설팅, 학습공동체 운영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교사의 약 76%가 연수에 참여하였고, 약 35%는 장학이나 컨설팅과 같이 교사가 직면한 현장 맞춤 지원을 받았으며 약 56%의 교사들은 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주도적인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여러 루트를 통해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적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반영하듯이 2022년 실시된 누리과정 운영 전문성에 대한 설문에서 10개 항목 모두에서 4점 만점에 3점 이상의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결과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냐는 문항에 평균 3.16점으로 다른 문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설문지 문항 10개 중 개정 누리과정의 적용 실제에 대한 8개 문항에 비해 개정 누리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개정 누리과정을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할 수 있는지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한 문항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개정 누리과정의 실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자신이 개정 누리과정을 잘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러한 불확실성은 어린이집 교사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모든 항목에서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 교사보다 자신의 누리과정 운영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위해 마련된 모든 형태의 교사지원 프로그램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참여율이 유치원에 비해 낮은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교사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시된 정책방안에 몇 가지를 첨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공동체, 연수은행제, 맞춤형 컨설팅은 교사가 선호할 뿐 아니라 집합연수보다 효과가 입증된 방법으로 이에 대한 정책은 매우 적절하다. 다양한 지원 방법의 개발뿐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연수 내용도 중요하므로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수준에 맞춰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수내용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공동체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전문가의 자격 조건이나 역량개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다. 교사연수 내용에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이 놀이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지원방법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2015년 누리과정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활동을 교사들이 그대로 실행했던 것은 구체적인 활동이 제시되어 마치 그 활동을 실행해야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의 세부 내용을 유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드는 역량이 부족하여 지도서의 활동을 그대로 활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놀이중심을 강조하는 개정 누리과정이 목표에 맞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놀이 활동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혹은 경험하지 못하는 5개 영역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내용이 필요하겠다.

둘째, 정책방안으로 제시한 학습공동체와 맞춤형 컨설팅은 교사별 어려움과 지원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원방안으로 사료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자기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기부여와 이를 지원하는 기관장의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작은 규모의 기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최초 자격 취득 기관이 보육교사 교육원이나 전문대학일 경우 모든 형태의 전문성 지원 방법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을 전문성 개발에 참여

하도록 이끄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와 예산이 확보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관유형, 교사경력, 담당연령 등 비슷한 조건에서 경험되는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공간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셋째, 지금까지 이루어진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는 현직교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교사양성과정 개정이 중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있으나 매년마다 새롭게 현장에 배출되는 초임교사들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우선 교사양성과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을 앞두고 교원양성과정 교수 대상으로 연수가 시행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으며, 관련 교재가 개정되었지만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교사양성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으며 개별 교수차원에서 아이누리포털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교수들 간에도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며 모의수업과 같은 기존의 교수학방법을 개정 누리과정에 맞춰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2].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역량인 놀이 관찰, 분석 및 지원 역량을 위해서는 직접 유아 놀이를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비교사의 놀이 관찰, 분석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 우수사례 공유 및 교수 연수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2. 유아의 놀이경험 측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2020년 시행을 시작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현장 적용이 2년간 매우 미흡하였으며 2022년 들어 조금씩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계속적으로 현장 안착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부모, 기관 및 전달체계에 대한 정책이 실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개정 누리과정이 그 취지에 맞게 실행되는 지를 검토하는 것은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가 그 목적과는 달리 오용되었던 것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사 및 원장(감)의 전문성 제고와 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에 더하여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올바른 실행과 그로

1) 김민솔, 이효림 (2022).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유아교육과정' 교재 내용분석. 유아교육학개론, 42(3), 243-272.

2) 권혜진(2021). 모의수업시연 경험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수·학습의 이해와 의미구성.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8(1), 53-73.

인한 유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나 교사차원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에서 유아들이 모두 긍정적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유아의 긍정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교사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교사 연수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현장실습을 다녀온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실내 및 실외 놀이시간에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기대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사주도의 집단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교실도 있는 것으로 보여 져서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개정 누리과정의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들은 타인 배려 증가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유아의 변화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평가에서도 배려심 증대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원장과 교사가 평가하는 누리과정 인간상과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 두 번째로 높게 달성된 것으로 보고되어 차이를 보였다. 유아에게 미치는 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중장기적으로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달성하고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와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는 향후 누리과정의 재개정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부모의 놀이이해 측면

2022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개정 누리과정을 경험한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였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경험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기본생활습관과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였으며 이 중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교육은 아쉬웠던 점으로 평가되었다.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교육을 아쉬운 항목으로 선택한 부모의 비율은 공립이 사립에 비해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난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립은 사립 유치원에 비해 교사 연수 참여율도 높아 개정 누리과정이 가장 잘 안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면 이러한 부모 평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교육이 놀이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놀이와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돕는 세밀한 방안이 필요하다.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은 여러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개별 기관 차원의 부모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부모가 꼭 참여해야 하는 기관 오리엔테이션이나 부모면담을 활용한다면 시간을 따로 내야한다는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료 준비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므로 개정 누리과정 이해를 돕는 영상이나 파워포인트 등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모 이해 프로그램의 자료를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우수한 부모지원 사례를 공유하여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에 앞서 유아기 발달에 있어서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계속적으로 개선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영어 학원을 선택하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추가로 학원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것은 자녀를 돌봐줄 기관이 필요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조기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만5세 때 학원으로 옮겨가는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하려는 부모들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이 가능한 많은 유아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학습기관 대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시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는 놀이의 가치와 학습에 미치는 놀이의 효과, 그리고 유아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갖추어졌을 때 정책으로 제안하는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나 교육과정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 부모들의 호응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중장기 및 단기 정책과 세부과제들이 교원, 부모, 전달체계 간 협력을 통해 실행되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목표로 하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 또한, 많은 유아들이 행복한 유아기를 보내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창의성과 자주성이 길러져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감성이 풍부한 성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NOTE

02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의 시사점 및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방향성

구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는 3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사업 및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떻게 대응하며 개정 누리과정을 시행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3차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방안에 동의하며 본 토론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의 시사점과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및 체계적인 방안 마련 필요

발표자료에도 명시되었듯이 3년간의 연구에서 개정 누리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유아의 개별화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민감하게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례조사에서도 원장과 교사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인식했으며, 교사 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편차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나 3차년도 연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정부의 전달체계에 따른 교사 지원에서의 격차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교사의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 이수 경험 없음: 유치원 17.5%, 어린이집 31.5%; 교사의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 없음: 유치원 56.0%, 어린이집 74.0%; 교사의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 없음: 유치원 41.8%, 어린이집 71.2%).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정부는 국정과제로 '단계적 유보통합'을 제시했습니다. 단계적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연수, 장학, 컨설팅 등 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지원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전달체계 간의 협력과 조율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교사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전달식 연수나 컨설팅이 아닌 지역교육생태계의 특성, 기관별 여건, 교사의 개인차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혼합연령학급의 증가, 교사의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아의 증가, 기관 운영 시간의 차이, 교사의 직급/경력과 놀이지원방법 이해도 차이 등을 고려한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지원 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처럼 놀이 선임교사를 두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놀이 선임교사를 지정하여 개정 누리과정 연수나 교육에 참석하도록 한 후 관련 내용을 다른 교사에게 안내하면서 정보공유와 반별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차년도 연구 결과를 보면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이유로 원장과 교사 모두 시간 부족과 정보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간 부족과 정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놀이 선임교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연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차년도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타기관 참관과 강사초빙 원내연수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타기관 참관의 경우 대체교사 등 인력의 확보와 인력 배치에 대한 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우선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소그룹 참여형 연수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2, 3차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교사의 자율연수 기반 마련을 위한 연수은행제 시행도 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포털 등에서 교사의 직급과 경력에 따른 교육자료 게시와 유아·놀이 중심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교사의 자율적 노력을 연수 점수나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체계 마련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2. 교사 대 유아비율 조정

-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3차년도 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된 원장, 교사, 부모의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한 정책 요구는 교사 대 유아비율의 조정이었습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유아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개별적인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유아비율 조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가 포함되었기에 교사 대 유아비율 조정과 관련된 대책 마련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사 대 유아비율 결정에서는 재정, 인력, 공간/시설면적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진주시, 서울 노원구, 서초구, 동작구 등)에서는 아동당 교사비율을 조정하여 시행한 후 양적·질적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지자체의 시범사업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 여건과 기관의 특성이 고려된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3.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정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국정과제화하면서 유치원-초등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과정의 독자적인 특성을 분명히 하면서 아동발달에서의 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연구를 통해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작업과 함께 연계성을 강화하는 맥락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모호한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4. 기관과 부모와의 파트너십 형성

3차년도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크게 증가하여 응답자 중 83.0%가 유아·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년: 62.9%, '21년: 62.7%). 교육과정의 방향성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전달체계 조사와 사례조사에서도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증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지속성을 위해서는 유아의 권리, 유아기 놀이의 중요성,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의 의미 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기관과 부모의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의 놀이권과 행복권 보장이라는 공통 주제를 두고 기관과 부모는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누리과정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부모의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모가 응답한 항목 중 자주적인 사람(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은 4점 척도 기준 평균 2.99점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 1학년 부모들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기대했던 점이 기본생활습관 교육이라는 것과 사례조사에서 교사들이 유아 자율성의 극대화가 주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스러움을 나타냈다는 것은 부모가 기관에 원하는 바가 교육과정 운영에서 제대로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초등학교 준비에 대한 부모의 불안을 높일 수 있는 사안이기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사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례 공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1~3차년도 연구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질은 보장하면서 현장의 다양성, 교사의 자율성, 유아의 주도성, 가정과의 연계성이 발현되는 교육·보육 환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연구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단계적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더욱 견고하게 내실화되고 체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OTE

NOTE

03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모니터링 및 지원방안연구 (Ⅲ) 정책 방안 토론

윤 미 경
푸른아이세상어린이집 원장

2020년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지원하고자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방안을 제안한 육아정책연구소에 감사를 표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연구를 통해 교사와 원장(감)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하고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부모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기초로 법과 제도 측면, 행정 측면, 재정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전달체계 차원에서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현된 것이 별로 없다는 발표자의 발표에 아쉬움은 있으나 지금처럼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많은 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유아에게 놀이권과 행복권을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소중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연구자가 제안한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 그리고 그에 따른 과제를 기반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의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원장의 교육과정 운영 측면,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장의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원장(감)의 전문성 제고, 교육과정 운영의 협력자로서 부모역량 제고 그리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발표자가 제시한 과제 중 세 가지를 기반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할 것은 원장(감)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아교육 기관에서 원장(감)의 교육철학은 그 기관의 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원장(감)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지원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것은 결국 유아들의 행복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발표자의 보고를 살펴보면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의 이수,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 경험, 학습공동체 경험 부분에서 어린이

집보다 유치원이 연수를 이수하고 관련 경험을 한 비율이 더 높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사업과 지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구분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 과정과 관련된 정책은 수혜 당사자인 유아들의 권리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유아들의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는 진정한 출발점이 아닐까요?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원장(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진행되는 개정 누리과정 집합 연수나 관련 장학, 컨설팅 등은 체감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연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공동체를 진행한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지원부터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적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의 협력자로 부모역량 제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아들의 놀이를 들여다보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부모의 이해와 협력이 더해지면 유아들의 놀이가 더욱 풍부해지고 배움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정 누리과정 적용 시점과 코로나19 발생 시점이 같아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휴원과 긴급보육이 반복되면서 개정 누리과정 적용에 혼란을 경험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이해를 돕는 부모교육까지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던 것이 현실입니다. 발표자는 2022년 교육부가 누리과정 포털 사업의 일환으로 부모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기관이나 학급 차원에서도 교육과정 운영의 협력자로서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나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오프라인 만남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부모와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고와 제안을 살펴보면서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과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교육과정과 관련한 탭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업무를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누리 포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과정 탭을 이용해 부모교육과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쉽게 자료를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부모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개정 누리과정의 중요성,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포함한 내용을 영향력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지속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통적인 교육과정 운영 중에 장애 유아나 다문화 가정의 유아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유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 제고와 함께 자료 개발 및 연수, 보조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발표자의 의견에 매우 동의하면서 이 제안의 실행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유아 중 지원이 좀 더 시급한 유아는 장애 유아입니다. 특수 교사도 보조 교사도 없는 학급에서 장애 유아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과잉 행동을 동반한 장애 유아가 있는 학급에서는 유아들이 놀이에 몰입하기도 어렵고 교사 또한 유아의 놀이를 들여다보기도 어려우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장애 유아를 통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학급의 상황에서 교사에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실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 유아가 있는 학급에 다른 조건 사항을 두지 않고 특수교사를 배정할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둘째,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발표자가 제시한 과제 중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의 두 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분입니다. 발표자는 기관에서 교사들이 학습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아들의 놀이를 해석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사 간 협의 시간과 기록 시간의 확보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교사들이 다른 업무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 현장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이어지는 보육업무로 인해 이러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발표자가 사례연구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서는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기본보육 시간 축소와 연장보육지원 확대 그리고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하여 교사가 교육과정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합니다.「2019 개정 누리과정」안착을 위해 개발된 누리과정 컨설팅 매뉴얼을 활용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그에 따라 지원이 시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컨설팅에 대한 체감도가 전무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안이 실행될지에 대해 기대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어린이집마다 개정 누리과정 멘토 교사를 지정하여 특별연수와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멘토 교사를 지정하고 전문가는 지역의 멘토 교사들을 모아 컨설팅하는 방법입니다. 컨설팅받은 멘토 교사들은 각 기관에서 학습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전달 연수를 하고 다른 교사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다시 멘토 교사가 컨설팅 현장에서 의견을 전달하며 컨설팅받게 된다면 다른 기관의 고민과 사례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소수의 전문가로도 많은 기관을 컨설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춤형 컨설팅이 세부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아직은 소수의 기관만 컨설팅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은 기관이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컨설팅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제안해봅니다.

본 토론을 준비하면서 교육부가 출발선 평등 실현을 위해 개편한 개정 누리과정이 유아교육 현장에 안착하기를 위한 사업과 지원에서조차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 유형에 따라서도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욱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유아가 어느 기관에 재원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의 격차가 있다는 것은 이미 출발부터 평등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발선 평등 실현이라는 교육과정 개편의 의미와는 다르게 현장에 적용되는 사업과 지원 격차의 원인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인 영유아가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고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담당부처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육 정책과 지원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3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안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들이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과 향후 개정 방향을 위해 실제로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NOTE

NOTE

04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문

정 미 연
서울명일유치원 교사

2020년부터 시작된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과 더불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현장 교육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 운영되던 교육과정은 교사의 계획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의 의견과 놀이의 흐름이 중심이 되면서 교실에서의 주도권이 교사에서 유아로 넘어가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실에 디지털 교육이 급하게 접목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까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2020년부터 적용은 되었지만, 사회적 상황과 교사들의 인식 정도에 따라 아직도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는 3년차 연구는 유아교육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반갑게 느껴졌다. 연구에서 제안한 중·단기 방안을 중심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토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지원이 필요하다.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 교사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어왔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 또한 매우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교사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를 불러올 수 밖에 없는 교육과정이기에 교사가 연구하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요구에 맞는 연수 개설, 평소 연구 시간 확보, 교사들간의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미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많은 연수들이 진행되어왔고 교사들의 참여율 또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연수를 실시할 때부터 지금까지 '놀이'를 강조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유아'가 뒤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 유아가 뒤로

밀려난 '놀이'가 중심이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보니 유아 개인의 성향이 반영되기보다는 주도성을 가진 유아를 중심으로 놀이가 전개되거나, 놀이 확장을 위해 안전이 무시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놀이 사례' 중심의 연수가 아닌 유아 발달을 이해하고, 개개인의 놀이가 존중받을 수 있는 '학급 운영 사례' 중심의 연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교실마다의 특성이 다른 만큼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인 교원학습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 부족, 교원학습공동체 구성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에 교원들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보다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예산지원에 따른 보고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연구에는 언제나 성공적인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를 문서화해서 보고해야만 하는 것 또한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가중으로 느껴진다. 순수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문화 조성이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연구 시간 확보에 있을 것이다. 하루에 5시간 이상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처리 등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우리 반 아이들의 관찰 기록을 분석하고, 놀이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한 학급당 교사가 담당하는 인원이 많아 유아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계획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지만, 행정전담 업무 인력 지원을 통해 교사의 행정 업무시간을 줄이고 교과 전담 교사 또는 보조교사 등의 인력 등의 지원으로 공동 교수체제를 수립하여 각 기관 내에서도 공동연구의 기반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 및 연구가 필요하다.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유아를 배움의 주체로 인정하며 즐겁게 놀이하며 배우는 과정을 통해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경험하며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초·중등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유아교육이 초·중등학습의 선행기관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연구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모들이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동의하고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면서도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학습에 대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단순히 교육과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분위기와 부모님들의 인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분명 유아교육은 학습이 중심이 되는 초·중고와는 다른 교육이다. 유아교육은 초·중등처럼 교과과정 중심이 아닌 기본생활습관, 자기조절력 등 기본적인 태도 및 가치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태도 및 가치를 형성하였을 때 지식과 기능을 적절하게 융합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통의 방법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시대의 부모들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선호하며 쌍방향 소통을 원하고 있다.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의 한방향 소통은 부모와의 정보교류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통의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이다. 그렇기에 모든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앱이 필요하다. 유아 사진 및 부모교육자료 및 유아 관련 정보들을 안전한 보호망안에서 서로 교류하며, 유아, 교사, 학부모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온전한 안착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유아가 줄어듦에 따라 교육예산을 축소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오히려 이 시기에 더욱 과감히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방향성이 바뀌면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유아들이 모여 앉아 전달되는 지식을 받기만 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창의성이 강조되고, 유아 개개인의 능력 개발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변화되지 않는 물리적 환경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유아들의 놀이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기관들도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간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매우 협소하고 최소한의 바깥놀이 시설도 확보가 안 된 곳이 많다. 따라서 유아들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일정 수준의 환경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유아교육기관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며 교육을 받고 싶어도 원하는 교육기관을 찾기가 어려워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부터 유아들은 불합격의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교육기관으로의 위상을 갖추고, 각 지역에 고루 설치되어 교육철학에 따라 유아가 안전하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과 보육의 적절한 통합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부모의 육아 고충을 함께 나누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부모의 돌봄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모든 아이들을 기관으로 모으는 정책에 대한 고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아 발달 시기에서 부모와의 애착은 삶의 질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기관에서 담당해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이 보여 안타깝다. 그러나 기관에서는 부모가 자식과 함께하며 쌓아가는 신뢰와 사랑은 절대로 대신 해 줄 없음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한 기관에서 보육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매우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 보육을 실시하다보니 부모님께서는 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 내내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아들은 과도한 학습 자극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반드시 보육이 필요한 유아가 아닌 경우에도 초등저학년보다도 더 긴 시간 기관에 머물며 유아들은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이마저도 시간이 짧다며 더 많은 방과후 활동의 개설을 요구하며 유아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쉼과 놀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유아시기에 많은 체험이 필요하다는 미명하에 실상 유아들은 과도한 학습에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 기관에서 교육과 보육을 함께 진행하되, 교육시간과 보육시간의 분리를 통한 유아들의 권리 보장과 부모교육을 통해 기관에서 모든 역할을 대체할 수 없음 또한 알려야 할 것이다. 다만, 맞벌이 등으로 보육이 꼭 필요한 유아들을 위해서는 유아들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는 보다 편안하고 아늑한 환경에서 충분한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인력지원을 통해 유아시기에 성인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유아들에게 느껴지는 결손이다. 타인과의 접촉이 제한되었기에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언어발달 지연, 정서적 불안감까지 유아들의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이미 여러 가지 결손과 어려움을 가지고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유아들도 많기에 아이들의 심리발달 검사 등에 따라 유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미래사회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잘 설정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NOTE

05 토론문

연구 자료에 대한 의견서

신 수 현
배화여자대학교부속 배화유치원 학부모

유아 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구 자료를 읽고 학부모로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표현해봅니다.

1. 〈표 3-2〉 누리과정 운영 전문성에 대한 인식: 교사와 관련한 의견

'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가 다른 항목보다도 가장 낮은 수치의 설문 결과를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표 3-9〉와 관련하여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 이수 여부에서 '시간 부족', '정보 부족'이라는 이유로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원장과 교사들이 많다는 것이 당황스럽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점이 '교사의 역량에 따른 수업의 질이 다르다' 입니다. 그런데도 누리과정 관련 연수를 이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으며, 몇몇 교사들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작년에 연수를 들어서 올해는 듣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정말 교사 1명이 돌봐야 할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기관에서 교사가 필수로 들어야 할 연수로 지정하고 모든 교사가 연수를 들을 수 있는 방안(제도)을 마련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누리'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각각에 해당하는 연수를 찾을 수 있으며, 포털 사이트에 '누리과정 교원 연수'만 검색해도 사례 중심의 누리과정 관련 원격 연수 목록이 뜹니다. '정보 부족'의 이유는 몇몇 교사 개인의 무관심이라 생각하며 '시간 부족'으로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교사들을 위한 방안은 정책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를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기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교사들이 누리과정 연수를 들어야 할 때, '전문 인력' 교사가 해당 유치원으로 파견 근무를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연수를 들으려면 잠시 아동에게서 눈을 떼야하니 그 시간만큼 아이들을 돌봐줄 전문가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전문 인력'은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관찰, 체험,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상적인 유아 기관의 물리적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생각해 낼 수 있고, 또한 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자료, 교구들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구축하여 질 높은 인력을 유치원, 어린이집에 제공해 준다면 교사들의 업무 경감 및 수업 계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사들이 시간이 부족하여 누리과정에 대해 연구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도 고려해보면, '시간제 교사'와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교사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상위 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표 3-25〉와 관련해서도 원장과 교사들이 '놀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책 실현 전에 교사들에게 다양한 자료가 준비되고 제공되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사들이 놀이에 대해 이해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3. 개정 누리과정 실행의 긍정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었던 문장에 관한 의견입니다.

'놀이지원을 위한 준비 시간 증가 79.6%'
'부모와 소통하는 시간 증가 64.7%'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과 학생 상호작용 후 아이들에 대한 파악도 향상으로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다고 판단되며, 교사의 아동에 대한 이해도 상승은 개정 누리과정이 이전 교육과정과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정 누리과정 이전에는 어린이집에서 학기 시작 전에 연간 계획표와 매달 초 월중

계획표를 가정으로 배부하고 안내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 중심, 놀이 중심의 각기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활동하므로 미리 계획된 내용이 아닌 아이들에게 적합한 내용을 때에 따라 다르게 진행하여 아동의 관심과 집중도가 향상되고, 그로 인해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4. 부모 교육의 확대와 개정 누리과정의 홍보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을 앞두고 몇몇 학부모에게 누리과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놀이 중심' 외에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부모에게 '놀이 중심 교육철학'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아이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의 연계성 등을 설명한다면 학부모들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믿고 교육과정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수업을 진행하면 유아는 정해진 주제에 깊이 있게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몰입을 통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체득하고, 몰입 경험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후 자신의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미래사회 역량에 아주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 더 신뢰하고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5. 연구 자료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유아 대 교사 비율 조정' 등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교사 1명당 학급 평균 학생 수는 21.4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아이가 재원 중인 만 5세반 유치원 학급 정원은 25명으로 담임교사 1명과 보조 교사 1명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현실입니다. 자유 놀이 시간에 한 아이를 지도하느라 더 많은 아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사와 아동 모두를 위해 '유아 대 교사 비율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6.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지원 및 요구로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연구를 위한 시간 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책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자녀가 만3세반에 재원 중일 때,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

집에 가면 담임교사는 책상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고 있고 아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자유 놀이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업무를 하는 동안 보조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며 하원 지도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다음 해에 유치원으로 옮기니 유치원은 2시까지만 정규 과정이 이뤄지며 2시 이후에는 방과 후 담임교사가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유치원 만4세반 담임교사는 2시까지 아이들과 함께하고 2시 이후부터는 학부모 상담, 수업 준비 및 업무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수업 준비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는 유치원 교사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 속에서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수업의 질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교육과정 연수를 위한 시간 확보가 시급함에 동의하고 적극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7. 개정 누리과정의 한계로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 중심의 주제를 선택하고, 선택한 주제를 토대로 만들기, 글쓰기, 독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이며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학년 때 한글을 배우면서 글자를 바르게 쓰는 연습, 색종이를 접거나 클레이 등의 재료로 만들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소근육 발달에 좋은 다양한 활동을 유아교육기관에 이어서 초등학교에서도 합니다. 누리과정 안에서 선택한 주제가 초등학교 교과서 안에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아이들의 다양한 역량을 성장시키는 활동이며, 초등과 연계됩니다.

8. 개정 누리과정의 한계로 '교육 목표와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에 왜 '평가'가 필요한가요?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므로 나이스를 이용하고 유아에 대한 생활기록부가 작성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나이스를 바탕으로 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나요? 나이스에 입력할 아이의 특성이 필요하다면 교사가 1년 동안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을 입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꼭 '평가'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느냐를 '평가'하지 말고, 유아를 관찰하고 유아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 지도해야 할 점을 파악하고 부모와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기의 평가는 절대평가도 정성평가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평가'보다는 아이에게 지도할 점을 나열한 목록을 교육기관에서 제시하고 목록에 따라 아이를 관찰하고 지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유아기의 누리과정은 평가보다는 유아의 성장 과정에서 노력하고 변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 목표는 누리과정을 기반한 수업 활동 그 자체가 미래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목표이자 실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구체적으로 교과 내용이 담긴 교육목표가 없어도 예를 들어 '우주'를 주제로 한 달 동안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하는 융합 수업은 창의력과 통합적 사고력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과정 안에서 ['우주'를 주제로 노래를 만들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줄 안다]와 같은 세부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9. 개정 누리과정의 한계이자 현장의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 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편차' 역시 누리과정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교사 주도적 시간으로 운영했으며, 어떤 교육과정이든 교사 주도적 활동에는 교사의 역량에 따른 수업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꼭 누리과정이라서 교사 역량에 따른 수업의 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과정이든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며 그에 따른 수업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0. 이전 교육과정과 개정 누리과정을 모두 경험한 학부모로서 아이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5세반 아이들이 2021학년도에는 한글을 주제로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 옷을 디자인하고, 패션쇼를 하는 수업을 진행했으며 2022학년도에는 '우주'를 주제로 별자리를 직접 만들어 보고, 유치원에서 만들어 놓은 돔 속에 아이들이 협력하여 아이들만의 우주를 만들어 보는 등, 우주에 대해 어른보다 더 심도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고 표현하는 수업을 보면서 학부모로서 감탄하고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수업과 활동들이 초,중,고에서 강조하는 융합수업이며 학생 개개인의 사고력을 향상시켜 미래 사회의 인재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개정 누리과정이 잘 정착하고 많은 교사들과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더 발전해나가고 있으니 서로가 연구한 자료, 사례 중심의 자료집 등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해나가길 희망합니다.

정책적으로 교사들이 열심히 연구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그들의 열정에 보답하는 방법이 있길 바라며,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교사가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과 같이 교사에게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사양성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느끼며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의무학제로의 편입은 반대합니다. '유아학교로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어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와 안정된 교육 운영을 위한 방법으로 의무학제로의 편입을 고려하는 이유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의 의무학제로 편입되면, 오히려 '의무교육'이라는 틀에서 일반화된, 획일화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또 다른 사교육의 길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무학제로 편입되면 아이들의 출결, 학적, 평가 등 기본 학교체제 안에서 아이들을 다뤄야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새로운, 더 많은 업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아이들의 자율성이 중요한 유아기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NOTE

NOTE

06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

김 정 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2019년 7월 24일 개정 고시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 3년을 다 채워간다. 어떤 교사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어떤 원장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작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했고, 익숙하지만 낯선 시선으로 교육과정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자료 개발 보급과 연수 등을 통해 교사의 실행력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학부모 연수, 홍보, 놀이 환경 개선 등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힘썼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놀이로 유아교육 본질 찾기(2017)', '유아교육, 놀이로 풀다(2018)', '놀이로 유아의 삶을 담다(2019)', '놀이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다(2020)'를 통해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담론화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에서 개정 누리과정 실천에 대한 교사의 응답 결과를 보면,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항목의 점수가 3.50점 이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천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이에 교사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누리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누리과정 기본연수 이후 직급별 심화연수 제공 필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교육부는 원격연수(15시간)와 참여형 집합연수(8시간)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후 연수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교사들은 아직도 놀이 중심 교육과정 교실 수업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 유아와의 상호작용, 관찰하기 등 실제 경험을 통한 연수를 희망하고 있다. 물론 시도교육청에서 학습공동체, 멘토링 등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의 체계화된 연수 지원과 시스템 제공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 원장(감)의 연수 내용은 교사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 지원을 위한 민주적,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사례 공유로 교육과정 리더로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심화연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된 자료의 직무연수 시스템 마련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에서는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이유로 '원장은 시간 부족 27.1%, 정보 부족 26.8% 순이었고, 교사의 경우 시간 부족 41.7%, 정보 부족 22.8% 순으로 나타났다. 원장과 교사 모두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든 비율이 2021년에 비해 증가하였다'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직무연수 시스템 마련을 제안한다.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많은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된 자료를 활용하기도 전에 또 다른 자료들이 보급되고 있다. 이에 개발된 자료를 누적 관리하고 원격(모바일, pc 등) 직무연수용(3~15시간 등)으로 재구성하여 중앙교육연수원뿐 아니라 원격교육연수원 등에서 교사들이 장소와 시간에 제한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매년 직무연수 이수시간 확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방법에 대한 개선을 제안한다.

셋째, 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교사 확보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에서는 유아 대 교사 비율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만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은 어느 학교급보다

유아 수 조정뿐 아니라, 지원 인력도 더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경험하고 있다. 놀이 중심 교육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 지원 교사를 학급당(유치원당) 1명씩 추가로 배치하면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유치원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에서도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만3세 학급부터 단계적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지원

유아수가 급격히 감소하며 학급 감축과 함께 소규모 유치원이 늘고 있다. 특히 1학급 병설유치원은 유아수가 적어 친구 간 협력놀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곳이 많다. 교사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 공동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실행연구회를 통해 교육활동 공유, 공동 학부모 연수, 줌(Zoom)을 통한 친구 만남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소규모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소규모 유치원의 다양한 운영형태에 대한 정책연구와 함께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3조(학급편성)에서는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유아수 감소에 따라 '같은 연령'이 기준이 아니라, 유치원 여건에 따라 원장이 동일 연령 또는 혼합 연령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아교육 양성기관에 현장 교원 초빙교수제 도입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에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제 개편의 중장기 방안 중 하나로 교사 양성교육과정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며 이에 덧붙여 교원 초빙교수제를 제안한다. 현장 교원의 파견, 학습연구년제 등을 활용하여 양성기관 교육과정에 현장 교원 강의 비율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학 교원의 유치원 현장 이해 제고를 위해 현장 교원과 공동 연구 등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부 주도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에서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비 지원을 통해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학부모수익자 부담금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단위로 무상교육을 선언하고 있다. 동등하게 교육받아야 할 3~5세 유아들이 시도의 형편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무상교육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 및 안정된 유치원 운영 속에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완전무상교육을 통해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사립유치원의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개선과 기반 마련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NOTE

NOTE

07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및 지원방안요구

정 경 진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들어가며

유아중심, 놀이중심으로 개정된 누리과정은 2019년 7월에 고시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2020년에는 개정 누리과정 변화에 대한 인식과 현장 적용과정 및 어려움 분석을 통한 현장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2021년에는 개정 누리과정 실천 과정의 교사 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기관과 교사의 배경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금 2022년 현재 유아교육 혁신 방향에 따른 개정 누리과정 실행 및 인식을 분석하고 현장의 사례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그간의 연구를 기초로 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지속적인 연구로 인해 누리과정이 차츰 안착되어 가고 있고, 교육과정의 실행주체인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정책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본 원고의 주제발표인 「2019 개정 누리과정」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중 센터의 입장에서 바라본 개정 누리과정 교원의 전문성 제고 활동, 운영실태, 지원요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

1. 개정 누리과정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논의

○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에 대한 지난 1년간 이수여부 조사결과가 2021년에 조사결과에 비해 이수율이 다소 감소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급격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영아들이 유아반으로 상위 편성되는 인구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반 학급편성 감소 현상과 경력이 많은 영아반 교사들의 교육 참여기회 부족으로 파악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아반 담임 직무연수 예산과 추진실행 결정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맡고 있어, 각 시도는 중앙센터의 계획된 사업량 부분만 진행해야 하는

연수 기회의 참여제한과 일반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정보와 시간 부족으로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유아반 담임을 맡지 않는 경우 교육과정 실행여부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라서 연수의 참여 동기와 교육과정 실행 중요성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낮기 때문으로 결국 개정 누리과정의 다양한 자료 및 정보를 찾아보기위한 별도의 시간 할애와 관심 부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 개정 누리과정 연수는 원장의 교육과정에 대한 실행 및 개선의지가 곧 정보력이 될 수 있다. 이에, 유아반 교사 외에 영아반 교사도 개정 누리과정 연수 참여를 통해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참여기회 제공 및 동기부여, 원내 자율적인 학습공동체 지원 등의 원장의 실행의지와 인식을 일깨우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정부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의 본래의 취지목적(유아중심, 놀이중심)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현장적용을 기대하며 교사의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지 않다면 과연 개정 누리과정이 어린이집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까? 확신이 어렵다.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수는 교사들의 경력과 참여열정 및 이해수준의 고려 없이 일회성 직무연수의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기에 교육대상별, 유아반 담임 경력기간을 고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현장적용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소그룹 형태의 심화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한 원내장학 및 컨설팅 만족도, 학습공동체 경험 유무에 대해 유치원의 참여 비율이 더 높은 것은 공립 단설 유치원의 경우 원감 및 수석교사의 제도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원내 장학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은 60인 이상의 정원규모가 되어야만 유아반 편성이 가능하고, 원장이 교육철학을 갖고 전문적인 교사 장학 능력과 열의에 따라 체계적인 원내장학이나 학습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아반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어린이집 교사는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과정 컨설팅 참여를 통해 재교육의 참여기회를 갖거나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9년 누리과정 개정으로 개발된 I-누리과정포털사이트 웹을 통해 간접 학습경험을 갖는다. 센터는 유아반 교사대상으로 다양한 보육과정 컨설팅 및 소그룹 형태의 심화교육을 추진하고 싶으나 각 지자체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센터장의 관심도에 따라 일부지역은 센터의 보육과정 사업이 전무하거나 소수의 인원으로만 진행되어 유아반 교사들의 교육과정 수준을 평준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원내 자율장학(59.1%)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유아가 선택하고 주도하는 놀이상황에서 교사는 시간, 공간, 자료 및 안전 등 실시간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어려움이 동료선임교사나 원장님을 향한 의지요구가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동아리, 소모임, 원내 멘토링 참여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은 3년마다 준비해야 하는 의무평가제의 영향력으로 보여 진다. 교육과정의 준비됨 없이 어린이집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교육과정과 연계된 1영역의 지표를 숙지하고 적용하기엔 경력이 적은 교사에게는 부담감이 크고 어려움이 있어 어린이집 원장은 지역 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소모임이나 원내 선배교사와의 팀티칭 등 통해 해결한 경험이 많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 또한 효과적인 전문성 제고방법에 있어 타 기관 참관(29.7%), 강사초빙 원내 연수(28.7%)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의 부재와 타 기관 참관 기회가 없었던 시기와 더불어 교사 자신의 교육과정 실제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토론식 수업, 모의수업, 타 기관 참관 등과 같이 교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에 적합한 교육(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을 실천할 수 있는 적절한 교수방법임을 확신하고 있다.

2. 개정 누리과정 운영 및 지원 요구에 관한 논의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교사 대 유아비율이 높다는 점과 놀이에 대한 이해, 전문성 부족을 꼽고 있다.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중 어린이집에서 만3세반은 1:15명으로 최근 영아들의 기저귀를 떼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만3세반 유아들이 혼자 용변을 보거나 옷을 챙겨 입는 등 기본생활습관의 기초형성이 지연되고 있어 놀이를 관찰하고 지원해야하는 교사가 일생생활지도에 시간 소모가 크다. 또한, 양육환경의 변화로 다른 기질과 요구를 가진 유아들을 교사 1인이 개별적인 놀이지원을 제대로 수행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감)과 교사, 그리고

부모까지 공통적으로 건의하는 만3세의 교사 대 유아비율을 낮추는 것과 유아 각 반에 보조인력 지원은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과 유아의 행복을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다.

- 출산율의 저하와 양육에 대한 환경적인 변화는 자아중심성이 강하고 경계성 장애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명 내외로 구성된 유아반에 자기조절력이 부족한 유아가 포함된 경우, 교사는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활성화시키지 전에 안전요원의 역할로 놀이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유아 각각의 기질과 흥미에 따른 개별 상호작용을 위해선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또 다른 어려움은 교사의 부가적인 행정업무 부담 및 업무이행 시간 부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들이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와 행정업무 경감과 같은 근무환경의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1인이 기본 보육시간 및 그 이후 통합보육시간까지 장시간 보육하는 직무특성상 보조교사의 지원 및 배치의 어려움은 결국, 개정 누리과정에 가장 중요한 교사의 역할 중 관찰 및 놀이지원을 위한 절대 시간부족과 다음 날 놀이지원을 위해 수업준비와 계획 및 일지작성 등의 준비 부족으로 보육교사가 온전히 수업에 집중하고 유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3. 정책제언에 관한 논의

○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중 교사의 자율연수 기반 마련을 위한 '연수은행제 시행'에 대한 제안은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독려를 통해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만, 먼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어린이집마다 비담임교사를 배치하여 교사가 근무시간 중에 온전히 교육에 집중하고 보육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i-play 컨설팅 매뉴얼을 어린이집도 함께 공유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는 유아반 교사의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 보육료 등의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원 외에는 질 높은 교육과정 진행을 위한 운영비 예산을 어린이집의 부족한 운영비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나,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현원 충족률은 지속 감소하고 안정적인 보육료 수입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직원의 연수비는 운영비 집행과정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향후,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의 법령개정과 예산마련 정책은 가장 시급하면서 우선시 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 효과적인 전문성 제고방법에 있어 타 기관 참관은 교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경험하는 유아와의 놀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놀이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사료된다. 그동안 교육 자료에서 사진과 영상으로만 접할 수 있었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실제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놀이를 어렵게 인식하고 놀이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문적인 컨설턴트 위촉 확대 및 컨설팅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내 교육과정 활성화 어린이집, 거점형 멘토링 어린이집, 우수운영기관 확보 등 단계별로 지정하여 어린이집과 교사에게 지원할 수 있는 안전한 예산확보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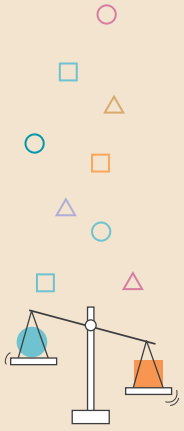
나가며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기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원화된 체계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 누리과정은 유보통합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시작되었다. 현재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 정책추진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서는 기관과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유아교사로서의 인성과 자질 및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영유아 놀이 및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권경미, 고재욱(2021). 2019년 개정 누리과정 연구 동향 분석.

김동례(2021). 2019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운영지원요구.



2022년 제6차 KICCE 정책토론회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 3년, 성과와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